

목마른 '금융의 메기'... 케이뱅크 자본확충 산넘어 산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
실권 대비... 신규 투자자 물색

은산분리 완화 논의 지지부진 속
신상품 지연 등 경쟁력 악화 우려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증자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작년 말까지 끝내려던 2차 유상증자가 올해 7월까지 미뤄진 가운데 실권주에 대한 처리는 물론 추가 자본확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3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총 3000만주의 신주 중 보통주 2400만주, 전환우선주 600만주로 진행된다.

〈주요 주주사 지분율 현황〉

(2018.5.30. 보통주 기준)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	비율
(주)케이티	6,047,700	10.00%
(주)우리은행	8,341,100	13.79%
엔에이치투자증권(주)	6,047,700	10.00%
한화생명보험(주)	5,692,000	9.41%
(지에스리테일	5,600,000	9.26%
(주)케이지이시스	4,000,000	6.61%
(주)다날	4,000,000	6.61%

이사회가 결의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일부 주주가 이미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일 단 지분율대로 배정한 다음 다음달 납입

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후에 실권주가 발생하면 제3차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인가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

이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1000억원 규모의 1차 유상증자 역시 이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증자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2개월이 넘게 걸렸다.

당시 19개 주주사 중 7개 주주사가 증자 불참을 선언했고, 나머지 12개 주주사가 728억원의 자본금을 댔다. 모자라는 272억원 중 신규 투자자인 MDM이 140억원 가량을, 나머지 약 132억원은 전환우선주 형태로 주주들이 나눠 가져갔다.

이번 유증도 실권주에 대비한 신규 투자자 물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증자인 만큼 주요 주주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주주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여기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역시 주주들에게는 부

담이다. 자본확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에선 신상품 출시 지연 등 케이뱅크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규제와 경쟁력 약화 등의 악재가 자본확충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규 투자자에 대한 조건 등 주주사 간의 합의도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유증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것은 물론 규모도 최소로 진행됐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이번 유증이 마무리 되는 대로 또 자본확충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초 유상증자 목표규모를 5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가계대출 규제에...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명암

10대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운영
신용 4등급 미만 금리 16.5% 가능
중소 저축은행은 기존 금리 낮춰야

금융당국이 중·저 신용자를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저축은행 규제에 저축은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 4등급 미만인 차주에게 금리기준을 18%에서 16.5% 이하로 제한하면서 대형저축은행과 중소저축은행간 반응이 엇갈리는 추세다.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진행되다보니 16.5%의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을 운영하지 않아 현재 고객의 신



저축은행

/연합뉴스

용도로는 16.5%는 맞추기 어렵다는 것.

이번 규제에 기존부터 중금리 대출을 운영해온 10대 저축은행은 한숨 돌린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거나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할 처

지에 처했다.

중소저축은행 관계자는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고객을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진행돼 상관없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5%대)을 넘긴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패널티 세부내용을 내달 초까지 확정하기로 하면서 희비는 더욱 갈릴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서 저축은행은 올해 증가율 제한을 2~6%대로, 5%대를 준수한 저축은행은 증가율 제한을 7%대로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중소저축은행 관계자는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 신용고객을 선별해 대출을 진행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 업체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어 은행 운영을 위해선 5% 증가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널티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2%대로 제한되면 저축은행 운영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몬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년 대비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에 따르면 카드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3배 크게 증가했지만 저축은행은 1.8배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대부잔액은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 15조 4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5.4%(14조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심화될수록 고금리 대출을 담당하는 중소저축은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롯데, TF구성... 북중러 교류 활성화'서 계속

中 동북3성에 대규모 쇼핑 관광단지

'선양 롯데월드' 건설 진행 중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호텔과 연해주 지역의 영농법인 및 토지경작권을 인수했다. 국경 근접 지역인 연해주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위치한 선양에서는 '선양 롯데월드' 건설을 진행 중이다.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쇼핑·관광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롯데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호텔과 농장, 그리고 중국의 '선양 롯데월드'를 통해 북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영농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이처럼 다각적으로 추진되는 지식과 경험,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북방TF를 통해 북방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북방 지역에 진출해 있는 식품·관

광 계열사들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문화·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는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가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자체 운송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물류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업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우선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활동을 확대하여 북방지역과의 관계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림의 역량을 모아 정부의 북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상장사 2곳 중 1곳, 사업보고서 기재 미흡”

금융감독, 지난해 보고서 점검

재무사항 부분 전년비 17% 감소

지난해 기업들 절반 이상이 최대주주나 임원 현황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주요 계약 사항 기재가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를 중점 점검한 결과, 2275개사 중 57.1%가 비재무사항(8개테마)에 대해 기재가 미흡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2583개사 중 점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해 상장 2040개사, 비상장 235개사가 점검 대상이었다.

'보호예수 현황'이나 '최대주주의 개요' 등 최근 서식이 개정되거나 '연구개발 활동 및 경영상 주요 계약' 등 점검 항목으로 최초 선정된 경우 주로 기재가 미흡했다.

회사의 임원 보수상정기준을 개략적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

(단위:사,%)

점검항목	대상(A)	적정(B)	미흡(C)	미흡률(C/A)
① 최대주주의 개요	683	341	342	50.1
② 임원 개인별 보수	512	319	193	37.7
③ 임원의 현황 (부실기업 근무경력 등)	1,983	1,648	335	16.9
④ 연구개발 및 미상환 현황	45	19	26	57.8
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경영상 주요계약	163	8	155	95.1
⑥ 보호예수 현황(2018.1월 개정)	507	209	298	58.8
⑦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2018.1월 개정)	408	270	138	33.8
⑧ 합병 등 사후정보	649	346	303	46.7

오르만 기재하거나 임원의 과거 부실기업 근무경력·학력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건 이상의 다수에 대해 기재가 미흡한 경우도 80개사에 달했다.

재무사항은 전체 2583개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401개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809개사로 33.7%를 차지했다. 전년 50.3% 대비 개선됐다.

요약재무정보에서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금융감독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하겠다"며 "재무사항의 경우 기재미흡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 등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이통 3사, 오늘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제출

'5G 주파수' 전쟁 본격 개막... '수 싸움' 승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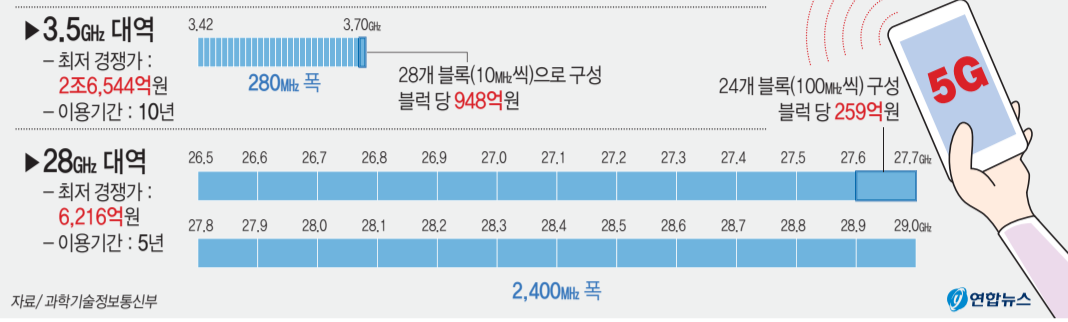
주파수 넓을수록 고품질 서비스 제공
5G 구축 유리한 '3.5GHz' 선점 치열할 듯

이동통신 3사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출사표를 내놓는다. 향후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에 이동통신사의 '수 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후 2시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한 시간 간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주파수를 넓게 확보할수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G 시대에는 누가 어떤 주파수를 갖느냐에 따라 차세대 서비스인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VR·AR) 등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



이날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할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통해 주파수 경매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는 각 사업자마다 대역별로 낙찰 받고자 하는 최대 대역폭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은 3.5GHz(기가헤르츠)의 경우 100MHz(메가헤르츠), 28GHz 대역은 100MHz다. 특히 3.5GHz 대역은 주파수도 달 범위가 비교적 넓고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휘절성이 강해 향후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

다. 이 때문에 수요가 많아 이동통신 3사 모두 100MHz를 기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할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혼·간섭 방지 대책,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내용이 기재된다. 향후 이동통신사의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되는 셈이다.

경매는 클릭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낙찰 받을 주파수의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 밀봉입찰로 주파수 위치를 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는 각사에 맞게 블록 양과 위치를 구성할 수 있다.

3.5GHz 대역은 10MHz씩 28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경쟁가격(시작가)은 3.5GHz 대역(280MHz폭) 2조6544억원, 28GHz(2400MHz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3.5GHz 대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3.5GHz 대역 경매는 총량제한 폭이 100MHz로 정해져 3사가 각각 10개-10개-8개 블록 혹은 10개-9개-9개 블록 등으로 나눠 가지는 시나리오만 가능해 비교적 균등할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매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경우 경매가 조기에 끝나 '주파수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경매는 15일 진행된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기술력 등을 평가한다. 적격심사의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oou.co.kr

유라시아 노선 확장... 中 22개지역서 화물수송

>> 1면 'CJ대한통운...'서 계속

유럽 14개국 30개 지역 사업 확장

기존엔 중국 청두역에서만 서비스 됐지만 2단계 확장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8개성, 3개 직할시, 총 22개 역에서 유럽행 화물수송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각 성의 성도나 주요 경제거점 도시들을 망라한다.

또 유럽에선 기존 3개역에서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14개국, 30개 역으로까지 사업지역이

확대됐다. 주요 국가 수도나 경제거점, 물류 중심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중국, CIS 대부분 지역에 철도와 트럭을 통한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해져 중국항 52개, 유럽항 74개의 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유럽, 독립국가연합, 중국의 철도 운송 종착역에서 생산거점, 물류센터까지의 트럭을 통한 '문앞운송 서비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라시아 지역에 17개 지점을 보유하고 연간 15만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세는 단위)의 컨테이너 철도운송을 수행하고 있는 철도

운영 전문업체인 RTS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뢰도 높은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화주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향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주요 도시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TSR로까지 넓혀 범 유라시아 물류 대동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북철도 및 육로연결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의 라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 지역에는 앞서 오픈한 선양 플래그십 센터를 모델로 해 더 많은 물류 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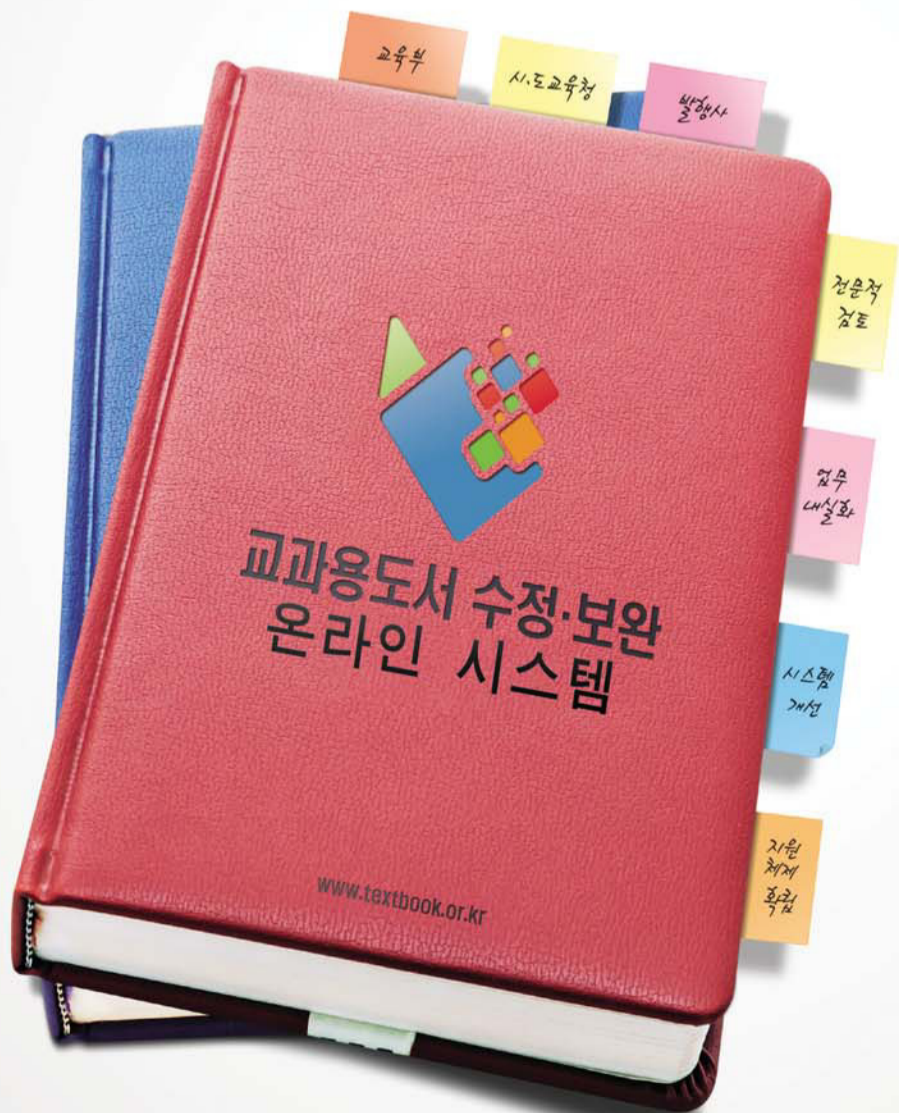


중국 쓰촨성 청두역에서 유럽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열차.

이 들어설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대륙 철도 연계상품 개발과 선양 플래그십 센터 등 물류기반시설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대륙물류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TCR을 통한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를 TSR까지

확장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영역을 넓히게 되면 우리의 '물류영토'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CJ대한통운의 물류 플랫폼을 통해 '2020년 글로벌 TOP5 물류기업'을 향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수정·보완 내용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전달합니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정·보완 업무 내실화 및 시스템 개선, 수정·보완 시스템 지원 체제 확립으로 교과용도서의 질을 제고합니다.

교과용도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교과용도서 질을 제고하고, 교실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용방법
www.textbook.or.kr
 1566-8572 (T105 상담전화)

KT, 블록체인·AI 기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 완료
e-브레인 연계 정확한 발전량 예측
KT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장부 공유

KT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KT)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KT는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 28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KT 직원들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KT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T는 하반기 중 전

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향후 법률시행 일정에 맞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의 인공지능 분석엔진 ‘e-브레인’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해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

현재는 발전사업자와 중개사업자 각각이 저장한 발전량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산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서로의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느 쪽의 데이터가 옳은지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KT는 발전량, 발전시간, SMP(전력가격)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블록체인화 해 고객사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게다가 위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정산, 검증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이다.

KT의 전력중개 사업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구현해 낸 핵심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데이터의 병렬·다중 처리를 통한 고속 암호화와 실시간 데이터 검증 및 합의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편, KT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스마트 에너지 상용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이외에 의료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사업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효성, 지주사 대표 조현준·김규영

5개사 사내외 이사진 31명 선임

효성은 3일 회사분할 후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와 사업회사 4곳의 사내외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지주사 효성과 사업회사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총 5개사는 지난 1일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11명, 사외이사 20명의 이사진을 선임했다.

지주사인 효성의 대표이사는 조현준 회장과 김규영 사장이 맡고, 조현상 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효성은 지주회사(株)효성과 신설된 사업회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대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외이사로는 손병두 전 KBS 이사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손영래 전 국제청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권오근 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경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선임됐다.

효성티앤씨는 김용섭 전무를 대표이사로, 이천규 전무를 사내이사로 뽑았다.

김 대표이사는 스파텍스 연구원으로 시작해 브라질 스파텍스 법인장을 거쳐 스파텍스PU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외이사로는 장승철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최병덕 전 사법연수원장, 오병희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 윤의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4명을 뽑았다.

효성첨단소재는 황정모 대표이사 부사장과 김승한 전무를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황 대표이사는 타이어코드 생산 및 기술 책임자로 일하며 품질 안정화·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사외이사로는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과 한인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특훈교수가 선임됐다.

효성중공업은 문성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김동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문 대표이사는 중공업PG 핵심사업인 초고압 변압기의 영업·생산 전 부문을 총괄하고, 스테콤 등 신규사업을 이끌어왔다. 사외이사로는 안영률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 신연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선임됐다.

효성화학은 박준형 사장을 대표이사로, 최영교 전무를 사내이사로 뽑았다.

박 대표이사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부 전문경영인의 길을 걸어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사외이사로는 편호범 전 감사원 감사위원, 왕윤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창제 전 법무부 차관이 선임됐다. /정민기 기자 21cindiin@

LGU+, OBD 기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운행기록 자가진단 장치)

통신·결제·차량 4개 사업자 ‘맞손’
제주 렌터카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

통신·결제·차량 관련 4개 사업자가 손잡고 각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커넥티드카 기반의 미래 결제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 KB국민카드, 제주패스, 핸디카와 ‘커넥티드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주 지역 렌터카들을 대상으로 OBD(On Board Diagnosis) 기반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OBD란 자동차의 고장 여부, 배기 가스 방출량, 위치 등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다.

4개사가 협업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제주패스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OBD가 탑재된 차량을 제공하고, OBD 장치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운행기록으로 친환경 운전습관인 ‘에코드라이빙’ 점수를 평가한다. 렌터카 이용 고객들은 운전 종료 후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속, 공회전 등 나의 운전습관과 이에 따른



모델이 LG유플러스의 OBD기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운영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에코드라이빙 점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의 특징은 OBD장치에 LG유플러스의 톱탑에블루션(LTE) 통신모뎀을 결합해 일반 차량을 커넥티드카로 탈바꿈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차량 내 OBD와 고객의 스마트폰 앱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차량의 위치 정보와 회원의 결제 정보 간의 연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고객의 주행 경로에 따른 소비 패턴, 방문고객 대비 실제소비 비율 등 단일 사업자가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4개사는 차량 운행, 결제, 위치 정보에

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 마케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커머스 연계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렌터카 이용 중 주차장, 주유소, 음식점 등 주요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전에 등록된 결제 정보로 자동 정산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4개사는 원격 차량진단, 맞춤형 통계정보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함께 결제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인텔리전스-커머스’ 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KT, 미주·유럽 장기 체류객 로밍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은 지역 맞춤 요금제 미주패스, 유럽패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T로밍 고객은 기존에 출시된 아시아패스, 한중일패스와 더불어 전 세계 85개국에서 저렴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85개국은 T로밍 고객이 방문하는 국가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미주, 유럽패스는 각각 미주 지역 15개국, 유럽 지역 44개국에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미주패스는 데이터 3GB(3만3000원), 6GB(5만3000원), 유럽패스는 데이터 3GB(3만9000원), 6GB(5만9000원)를 제공한다.

미주, 유럽 지역을 방문하는 T로밍 고객은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현지에서 머물



SK텔레콤 홍보모델이 미주, 유럽패스 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고, 여러 인접 국가를 방문한다. 미주, 유럽패스는 이러한 여행 패턴을 감안해 이용 기간을 30일까지 넉넉하게 늘리고, 로밍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확대했다.

/김나인 기자

6개 그룹사, ICT 인프라 구축 완료

KT 그룹사가 화재로 교실을 잃고 낙심한 필리핀에 새로운 교실을 선물했다.

KT는 지난 5월 28일부터 일주일간 필리핀 타클로반 레이테시 둘락 지역에서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KT에스테이트, KTSAT, KTDS, KT그룹희망나눔재단 등 6개 그룹사가 참여해 화재로 소실된 초등학교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교실을 다시 짓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타클로반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560km 떨어진 섬으로, 해안가에 인접한 어촌 마을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륙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재해 복구를 위해 한국군부



그룹사 임직원이 교실 외관 공사 및 SW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KT

대가 파병됐고, BC카드도 ‘빨간참차’를 파견해 급식을 지원했다. 이후 2014년 해당 부대가 한국으로 복귀 후에도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과 영양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KT 6개 그룹사가 봉사를 펼친 곳은 둘락에 소재한 산호세 센트럴 초등학교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20개반 78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나 지난해 10월 컴퓨터 교실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큰 화재가 발생해 13개 건물에 전소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웠다.

현지에 도착한 그룹사는 각사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ICT 교실을 신속히 지역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KTDS는 IT 나눔 교육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컴퓨터 수업과 가상현실(VR) 체험 교육을 진행했고, KT에스테이트는 교실 외관 공사 등 리모델링과 벽화 그리기로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아이들의 시청각 교육 지원을 위해 초고화질(UHD) TV와 어린이 방송 교육 콘텐츠 등을 무상 제공했다.

/김나인 기자

KT, 화재로 소실된 필리핀 초교에 ICT 교실 선물

LG 'G7 씽큐', ABCD로 북미 시장 공략

〈오디오·배터리·카메라·디스플레이〉

유럽·아 등 글로벌 시장 순차 진출
美·캐나다 주요 이동사 통해 시판
'구글 프로젝트 파이'도 최초 출시



LG전자는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로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 모델이 LG G7 씽큐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로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US셀룰러 등과 캐나다 벨, 로저스, 텔러스 등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G7 씽큐를 출시했다.

또, G7 씽큐는 베스트바이 등 전자제품 판매점은 물론, LG전자 프리미엄폰 최초로 구글 프로젝트 파이를 통해서도 출시된다. 프로젝트 파이는 구글이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G7 씽큐의 편리함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LG G7 씽큐는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별

도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운드가 풍부한 '붐박스 스피커'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최적의 화질을 추천해 주는 'AI 카메라' ▲디스플레이 소비전력을 최대 30% 낮추고 저전력 알고리즘을 적용해 넉넉한 '배터리 사용시간' 등 고객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ABCD(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성능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주요 IT매체 GSM아레나는 "LG의 신제품인 LG G7 씽큐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응답자의 60%는 디스플레이를 핵심 기능으로 꼽았고 이는 실제 사용 시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IT전문매체 나인 투 파이브

구글은 "만약 당신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한다면 LG가 내놓은 기본기가 탄탄한 LG G7 씽큐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 스마트폰의 또 다른 백미인 붐박스 스피커는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큰 출력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CIS,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 G7 씽큐를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 단말사업부장 하정옥 전무는 "모든 고객들이 늘 쓰고 있는 핵심기능들을 대폭 향상시킨 LG G7 씽큐의 가치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구형준 현대글로벌버스 물류사업본부장(오른쪽)과 펀드 지원 첫 번째 수혜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김광규 씨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향남물류센터에서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버스

동반성장 확산 위한 상생협력 펀드 운영

현대글로벌버스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펀드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생협력 펀드는 현대글로벌버스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중소물류 협력사의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2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상생 기금이다.

현대글로벌버스는 6월부터 펀드 운영을 개시하며 첫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향남물류센터에서 전달식을 실시했다. 현대글로벌버스는 총 200억원을 은행에 예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물류인의 대출이자 중 20%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한다.

수혜자는 펀드 지원 신청자 중 현대글로벌버스 내부 심의위원회와 대출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대글로벌버스는 연간 50여명의 운전기사와 10여개 협력사에 펀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버스는 지난해 9월 협력사 및 물류산업 종사자들과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상생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상생협력 펀드 200억원을 비롯해 안전문화 전파, 물류인력 양성, 중소물류기업 경영컨설팅에 필요한 기금 총 500억원을 조성했다. 현대글로벌버스는 상생협력 펀드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추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 올레드TV, 美·英서 잇달아 '만점 행진'

英 매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
LG "프리미엄 TV시장 지속 선도"

LG전자는 2018년형 올레드 TV에 대해 최근 글로벌 IT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국 IT전문매체 AV포럼은 LG 올레드 TV에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아주 멋진 TV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영국 리뷰 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 역시 올레드 TV에 5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LG 전자가 2018년 올레드 TV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지금까지 테스트해온 것 중 가장 완벽한 TV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영국 AV 전문매체 '왓하이파이'도 올레드 TV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훌륭한 TV"라고 호평했다.

미국 USA투데이의 리뷰 전문매체



미국 베스트바이에 매장에서 직원이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리뷰드닷컴'은 "화질은 올레드 TV를 구매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며 올레드 TV는 "현재 구매 가능한 2018년 최고의 TV 중 하나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씨넷'도 "LG 올레드 TV가 2018년 상반기 최고의 TV 자리를 놓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

며 "지금까지 테스트해온 제품 중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TV"라고 극찬했다.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를 적용, 더욱 완벽한 화질을 제공하는 2018년형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세운 기자

르노삼성 'SM3', 1000만원대 '파격 할인'

르노삼성자동차가 준중형 세단 SM3(사진)를 9년 전 가격에 판매한다. 경차와 소형차 가격인 1000만원대다.

르노삼성은 SM3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을 75만~115만원 내린다고 3일 밝혔다. 2002년 데뷔해 현재까지 40만대 판매된 SM3는 출시 이후 국내 준중형 시장을 대표하는 패밀리카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09년 출시했던 2세대 모델은 당시 중형 세단에 버금가는 넓은 실내공간과 고급스러운 외관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주목받았다. 최상위 트림인 RE는 기존 2040만원에서 75만원 내린 1965만원, LE트림은 115만원 할인된 1795만원, SE 트림은 85만원 낮아진



1665만원, 기본형인 PE트림은 100만원 인하한 1470만원으로 판매된다.

이는 9년 전 2세대 출시 당시와 같은 수준의 가격이다. 국내 경차 및 소형차

최상위 트림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산 경차 대표주자인 기아 모닝은 950만~1544만원에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대상으로 'H-비즈니스 케어'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대형트럭 수리 지연시 최대 150만원 금전 보상

'H-비즈니스 케어' 프로그램 실시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수리 지연시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입고된 차량의 수리가 늦어질 경우, 지연 보상을 해주는 'H-비즈니스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5월 1일 이후 출고된 현대차 대형트럭 2종(뉴파워트럭, 엑시언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출고 후 1년 내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상용 '블루핸즈'에 입고된 차량의 수리 기간을 산정해 기간 내 완료할 경우, 기간이 초과될 경우 경과된 일자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

한편 현대차는 상용차 고객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H-비즈니스 케어를 비롯해 '현대 상용차 멤버십', '현대 트럭·버스 서비스 앱', '현대 상용 고객센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시스템(주)이 2일 용인연구소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들 600여명과 함께한 '2018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 /한화시스템(주)

한화시스템

임직원 가족 행사 성료

한화시스템(주)이 2일 용인연구소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들 600여명과 함께한 '2018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를 위해 한화시스템은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들기 체험,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야외 오락실 등 다채로운 놀거리와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했다.

한화시스템은 2002년부터 매년 1회씩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가족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주관으로 가족초청 행사를 마련해왔다.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면서 올해는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게 됐다.

/구세운 기자

페이열풍에 폭~ 빠진 보험사... “카드 대신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본인인증 서비스 등
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맞춘
모바일 시장 젊은층 유입 기대

보험업계가 ‘페이(Pay)’ 열풍에 합류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험사들이 2030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등과 손잡고 보험료 납부 등 서비스를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해온 보험료 카드납부 제도가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보험사들이 ‘페이’ 서비스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부터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카카오페이 인증을 도입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금융서비스 이용



교보생명이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첫 번째 업무 제휴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의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교보생명 김욱 디지털혁신담당 전무(왼쪽 다섯번째)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시 전자서명이 필요한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서명을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업계 최초로 모바일 웹 보험계약대출을 제공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교보생명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된

다. 또 모바일창구 앱을 처음 이용할 시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 및 휴대폰 인증만으로 지문 등 간편인증을 등록도 록 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카카오머니 송금을 통해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및 보험계약 대출 등을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구서를 등기 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청구 알림톡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인증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카카오페이 인증을 활용한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손 잡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활용한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및 열람의 편리성을 강화했다. 장기보험 실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

며 대상자들이 안내문 열람 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 편리하게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KB손보는 현재 다이렉트 인터넷보험 가입 시 손쉽게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내로 기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 등 다양한 본인확인 절차에 카카오페이 인증 기반의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신한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들 역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과 함께 각종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와 마찬가지로 페이 역시 수수료 등이 나간다”며 “다만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으로 젊은층 유입이 기대되는 등 마케팅 효과로 업계 내 페이 열풍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메시지·보이스뱅킹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아이폰에서 모바일 뱅킹 앱(App)을 실행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창과 음성비서(siri)에서 송금과 잔액조회가 가능한 ‘메시지뱅킹’, ‘보이스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메시지뱅킹은 문자메시지 창(iMESSAGE)에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간편비밀번호와 생체인증(지문 또는 얼굴)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보이스뱅킹은 음성비서(siri)에서 “OO에게 2만원 보내줘”, “내 통장에 얼마 있지” 등의 명령어를 말하고 생체인증을 거치면 송금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보이스뱅킹의 송금은 고객이 지정한 6개 입금계좌로 가능하며, 잔액조회는 고객이 지정한 1개의 본인 입출금계좌에 한해 가능하다.

두 서비스 모두 ‘IBK 획 서비스’를 가입해야 이용 가능하며, 하루 누적 300만



원까지 송금 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애플의 API를 활용해 금융 업무에 적용한 것으로 iOS 11 이상의 지문 또는 얼굴 인식 지원이 가능한 아이폰에서 이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혁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이원 넥스트(i-ONE NEXT)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t@

재보험사 신규 인가 ‘경쟁체제’로

금융위 ‘손보산업 혁신·발전 방안’

매출·공시 방법 ‘보유보험료’ 중심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 인가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매출 관련 공시 방법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바꿔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보유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료에 위험요소 반영... ‘경쟁 촉진’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가 외형경쟁이 아닌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공시제도·영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험료를 산출·적용 관련 구체적 법령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에서 반복 질의하거나 보험료를 적용 관련해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성 보험에 대해 통계요율, 협의요율, 판단요율 간에는 우선순위, 변경기준 등에 대한 규제 없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일물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율적용의 일관성을 가진다.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험사가 이를 통해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중엔 사이버보험 등 새로운

〈손해보험 보험료 분류 체계〉

구분	통계요율 : 객관적 통계		非통계요율 : 다양한 요소 결합	
	자사 통계요율	참조요율	협의요율	판단요율
산출 주체	보험사 (내부검증)	보험개발원 (금감원 신고)	재보험사 (내부통제 기준)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
산출 방법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수집, 집적한 통계에 기초하여 보험료 산출	손보험사의 통계를 집적하고 통계기법에 따라 보험료 산출	재보험사가 공개되지 않는 내부기준 등에 따라 원수보험사에 제시하는 보험료	보험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통계 및 보험인수 경험 등을 종합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유형의 보험상품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에 언더라이팅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험평가와 계약인수에서 통계·경험을 축적한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료 산출 시 재보험사 의존도도 축소한다. 보험사별로 선택·집중해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합리한 인가·공시·규제 손본다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한다. 당국은 적정 자본금, 대주주의 재보험업 지속 영위 의지·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재보험 영업 역량 등이 적정한 경우 적극 허가하기로 했다.

보험료 경쟁을 위해선 재보험계약에 ‘순 재보험료방식’이 가능토록 한다. 이 점을 법규에 명시해 계약자에게 사업비 할인 등 경쟁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개선

한다. 선박의 경우 500톤 미만 선박보험에 대해서 ‘단독인수’가 가능토록 해 보험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선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경영공시기준은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한다. 현행 ‘원수보험료’ 중심의 경영공시기준이 과도한 외형 경쟁을 촉발한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원수보험료 이외에 ‘보유보험료’, ‘보유율’과 관련한 경영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보유 정보를 제공한다.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규제인 일명 ‘25% 룰’도 손본다. 일반(단기)손해보험도 장기(저축성)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 1개월 기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방카 영업구조에 있어 보험간 균형을 회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부터 하되 전문 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 알뜰살뜰 사용법은?

금감원 Q&A

신용카드 포인트를 다 사용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아쉽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이 폐업돼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 경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통상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적립된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인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포인트는 교통카드 충전, 세금납부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이용 조건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면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1포인트라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 신청해 적은 포인트라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B락스타 청춘마루’ 한달만에 ‘1만 명’ 돌파

KB국민은행이 서울 홍대 거리에 문을 연 ‘KB락스타 청춘마루(사진)’가 오픈 한달 만에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했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청춘마루는 40여년간 영업점으로 운영되어 온 공간을 리모델링해 젊은 문화의 중심지 ‘홍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춘들이 모

이고 만나는 장소로 탈바꿈한 문화공간이다.

명사들의 스토리를 직접 듣는 강연, 매월 특별한 주제의 강좌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아카데미, 홍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 문화 인사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등의 문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청춘마루는 동아리 모임 및 졸업작품 전시회 등 유스(YOUTH)고객들이 스스로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청춘들의 콘텐츠로 공간을 채워가는 열린 공간이다. /안성미 기자

대한민국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꿈의 날개가 되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이 대학생 여러분의 꿈을 위한
날갯짓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신청기간 5월 17일(목) 9시 ~ 6월 15일(금)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5월 17일(목) 9시 ~ 6월 19일(화) 18시
-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 1학기 신·편입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 ☎ 1599-2000

2018년 2학기 소득구간은 1학기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

(단, 기초·차상위 계층과 가구원, 소득·재산 등 정보 변동자의 경우 2학기에도 소득구간 조사 반드시 신청)



글로벌 증시 '주춤'... 주식형펀드 수익률↓

주간펀드동향

이탈리아궤 리스크에 국내외 하락세

이탈리아발 정치혼란에 글로벌 증시가 주춤한 탓에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5월25~31일)간 전주 대비 1.74% 하락한 2423.01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기간 기관은 1조783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대비 1.17% 하락했고, 신중국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EM지수는 전주대비 1.26% 하락한 1120.7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탈리아발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급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확대된 영향이다"고 해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재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강화로 1.40% 하락했고, 순자산은 8500억원 감소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26% 하락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인도(3.40%), 친디아(2.95%), 아시아퍼시픽(ex_J)(0.81%)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유럽(-2.08%), 중남미(-5.79%), 브라질(-7.39%) 펀드는 동일 기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다만 이탈리아 리스크가 실제 이탈레시트(ITALY+exit)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다소 완화된 탓에 순자산은 1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에서는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인 '현대인베스트먼트로 우프라이스증권투자자신타 1(주식)C3'(2.99%)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신홍아시아주식 유형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타 2(H)(주식)종류A'(4.27%)가 해외주식형펀드 중 수위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지난 5월 31일 KB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 발대식'에서 윤경은 사장이 고객평가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KB금융,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 발대식

KB증권은 최근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은 KB증권의 신규 온라인서비스와 콘텐츠를 고객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온라인 고객패널체제로, 2017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담조직인 마블 랜드 트라이브(M-able Land Tribe)는 애자일(Agile·기민한) 방식을 통해 고객과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반영하며 고객 가

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HTS-MTS의 사용 편의성 개선 및 디지털 자산관리센터 콘텐츠 개선 등 고객평가단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고객 3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온라인 거래채널 체험 및 개선 의견 개선 ▲온라인서비스 고객인터뷰 및 설문조사 ▲월 1회 정기토론회 참석 등 약 6개월간 KB증권의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선거철 맞아 휴식기 들어서는 분양시장

분양캘린더

6월 첫째 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3275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국 4곳에서 개관한다.

분양물량이 적은 6월 첫째주지만 수도권에서 눈여겨 볼 만한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지역에서는 GS건설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8구역에 '신길과크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재건축 규제 속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단지로 분양 전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군포시 금

정동 보령제약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7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금정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6층~지상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가구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휴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다.

같은 날 신세계건설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49-15번지 일원에 '빌리브 울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1~84㎡ 아파트 405가구와 전용면적 53~64㎡ 오피스텔 162실 등 총 567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는 함월초, 복산초, 성신고 등 여러 학교가 있다. 서덕출공원, 학생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에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정연우 기자

재개발의 힘, 아현 뉴타운의 재발견

서울 마포구 일대 땅값 상승률 1위 더블역세권에 서울역 등 진출 쉬워 재건축보단 재개발 수요자 증가세

서울 마포구 일대 땅값 상승률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아현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개별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땅값 상승률은 6.84%로 전국 평균인 6.2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중 마포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1.89%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초구(8.76%), 용산구와 성동구(8.14%), 강남구(7.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과 공공주택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아현 1구역(가칭)'은 현재 재개발 초기 단계다. 구역 지정을 위해 올해 가을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평균가격이 3.3㎡당 6000만원에 형성돼 있는데 구역 지정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이고, 지하철 2·5호선 더블역세권을 형성한 데다 서울역, 광화문, 여의도로 진출입이 쉽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재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가칭). 주택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돼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3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아현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3.3㎡당 2432만원에서 3501만원으로 올랐다.

아현3구역에 지어진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59㎡가 10억2000만원, 84㎡는 13억원에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젊은층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며 "입주민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매물을 팔려고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아현 1-3구역에 들어선 '아현아이파크'는 전용 59㎡가 9억원, 84㎡는 10억5000만원에 매매가격이 형성됐다. 아현 4구역에 지어진 '공덕자이'의 평균 매매가는 전용 59㎡가 9억원, 84㎡가 13억원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5년에 들어섰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에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지가 상승은 물론 아파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마포구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다는 점과 교통이 좋고, 훗대상권이 상수동과 연남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연우 기자 ywji964@metroseoul.co.kr

<국내 육계업계 4개사의 주요 재무제표 및 영업실적>

(단위: 십억원, 배, %)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현재주가 (원)	2017				2018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영업이익률	YoY	영업이익	YoY	영업이익률	
하림	322.1	3,705	867.3	5.0%	15.1	-11.5%	2.1%	177.1	-5.7%	-8.4	적자전환	-4.7%
동우팜투데이	102.8	3,980	230.8	-2.1%	16.8	73.4%	7.3%	51.0	-0.8%	1.0	-72.4%	2.0%
체리부로	99.2	3,560	361.3	14.9%	24.6	-3.9%	6.8%	68.5	-9.2%	-1.1	적자전환	-1.6%
마니커	98.0	840	254.6	10.8%	6.9	흑자전환	2.7%	65.0	15.8%	-3.3	적자전환	-5.0%

/자료=리서치알용

치맥·삼계탕의 계절... 닭고기 관련주 '주목'

株라쿨라의 종목

육계업체 관련주

월드컵·삼복시즌 소비량 증가 전망 최선호株로 '동우팜투데이' 꼽아

"러시아 월드컵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월드컵은 심야시간 경기가 많아 야식 강자인 치킨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용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3일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육계 업체들의 최대 성수기가 도래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적절한 투자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658원을 기록했던 국내 육계가격은 지난 1분기 1385원까지 급락했다.

조류독감(AI) 피해로 살처분이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감염피해가 적어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계가격 하락으로 업체들의 외형적

소와 마진률 감소로 이어졌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2~3분기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육계가격의 반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는 월드컵 특수까지 더해져 업황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6월부터 8월은 삼복과 프로야구 시즌, 피서 등으로 육계업계의 최대 성수기다. 여기에서 이달 중순 시작되는 러시아 월드컵은 오후 11시~12시 경기가 많아 치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판단이다.

실제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월드컵이 없었던 해의 6~7월 육계 도축량은 전년보다 평균 2.9% 증가한 반면, 월드컵이 개최된 해에는 9%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관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이다.

사료가 원가의 30%에 달하는 육계 업체는 주원료인 대두박, 옥수수 등 곡물을 모두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과 국제 곡물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올해 옥수수의 평균 국제가격은 소폭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이 6.2% 하

락(원화값 상승)하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적다는 점도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 8.6kg 수준에서 지난해 13.6kg 가량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1인당 소비량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용은 관련주인 하림, 동우팜투데이, 체리부로, 마니커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지난 1분기 흑자를 달성하며 우월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동우팜투데이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동우팜투데이는 닭가공 전과정이 계열화돼 있는 육계 전문기업으로, 국내 2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실적 기준 PER(주가수익비율)이 5.5배에 불과하며, 무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도 650억원에 달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청와대

한반도 전쟁 아픔 딛고 68년만에 '영구평화' 오나

남북미 3국 만나 '종전선언' 할지 관심

남북은 4·27 평화협정 준비 '착착'

◆12일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본격 시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날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의 워싱턴DC 방문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찾은 북측 최고급 인사다.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예방, 김 위원장 친서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인 등으로 자칫 불투명해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같은 날 청와대도 김의경대변인 이름을 댄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계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실제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이미 문 대통령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

한국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줬던 6월이 이번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3국 정상 '종전선언'까지 성사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남과 북은 지난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을 잇따라 열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전쟁의 핏빛으로 얼룩졌던 6월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푸르름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이를 장착해 쓸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처리 또는 폐기 문제, 그리고 핵 실험

등 추가 개발 금지 등이 핵심이다.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 보장의 방법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장성급·적십자 회담 등 '교류 물꼬'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에서 각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 차례나 만나며 '우애'를 다진 남북도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연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교류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은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

성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합의사항이지만 결국 6월로 밀리게 됐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또다시 나흘 뒤인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가 다소 밀리는 모양새지만 당초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행사'도 열기로 했다. 다만 공동행사를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치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고위급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15일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의 교환이 있었다"면서 "(6·15 행사에 대해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더 정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대북)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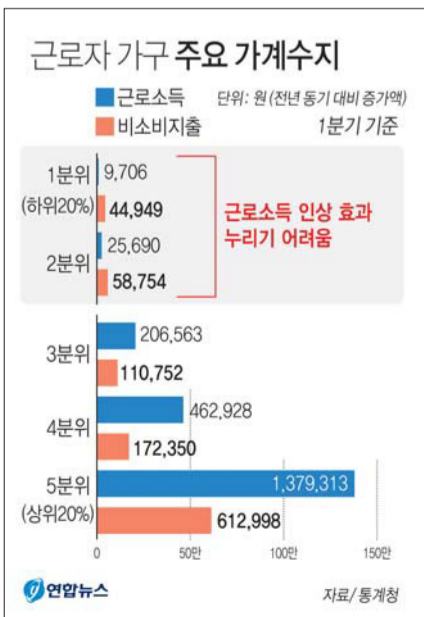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 월급보다 세금·이자 더 늘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올해 1분기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월급보다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혜택이 상위 6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와 조세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06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세금(경상조

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77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합하면 소득 중에서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인 '비소비지출액' 규모는 더 커진다.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 전보다 4만4949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473원)을 약간 웃돌았다. 하지만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에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을 더한 비소비지출은 5만8754원 늘었다. 2분위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정도로 충분히 올랐다. 이들의 가구 근로소득은 137만9313원 불어났

고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998원 증가했다.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928원, 20만6563원 상승했고 비소비지출은 17만2350원, 11만752원씩 올랐다.

5분위 근로자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에 비추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세나 준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지금, 불평등 해소하는 착한 산업혁명 시대

‘창조·혁신’에 사회적 가치까지... 新기업인 어디 없나요

점프! 커넥팅

新기업가 정신 필요한 때

과도한 노동·소득 불평등 불만 외면
지속 투자·복지정책 확대 강화해야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기업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창출한다. 또 공유가치창출(CSV)을 실천하는 수천개의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대의 핵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 신(新)기업가정신이 주목받고 있다.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세기 전 전쟁과 가난에서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를 만든 요인 중 하나가 기업가정신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혁명과 인터넷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서 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문제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불만을 외면해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경제·사회적 불만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 기준인 3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생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7개 선진국(G7)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의 임금, 근로여건, 분배 등을 현재의 우리나라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한국과 G7 국가 민생경제 지표 비교)

분야	지표항목	최근 한국 수치 (A)	1인당 GNI 3만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 (B)	비교	평가
임금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5.8% (2016)	7.1%	81.7%	취약
	실질 평균임금	32,399\$ (2016)	39,992\$	81.0%	취약
근로여건	연간 근로시간	2,069시간 (2016)	1,713시간	120.8%	취약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10.1% (2014)	25.2%	15.1%p	취약
분배 및 사회복지	지니계수 개선율	11.4% (2014)	31.5%	20.1%p	취약
	상대적 빈곤율	14.4% (2014)	11.8%	-2.6%p	취약
청년실업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0.4% (2014)	20.7%	10.3%p	취약
	청년실업률	9.8% (2016)	10.9%	1.1%p	양호
경제고통 지수	청년 NEET 비율	18.0% (2013)	14.5%	-3.5%p	취약
	경제고통지수	4.7p (2016)	8.5p	3.8p	양호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미국 구매력평가 (PPP)달러 기준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실질 평균임금, 연간 근로시간에 대한 비교는 비율(A/B)로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표 항목에 대한 비교는 격차 (B-A)를 %와 p로 표시
*평가는 해당 지표에 대한 최근 한국의 수치가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에 비해 양호할 경우 ‘양호’, 취약할 경우 ‘취약’으로 표시했으며 격차에 대한 평가나 거시적 환경의 차이 등은 고려되지 않음.

(자료=OECD, IMF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라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의 경우 1달러 이상 낮았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5.8달러지만, G7 국가들은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7.1달러였다.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 기준 평균 임금은 3만2399달러로, G7 국가들이 3만 달러를 달성한 때의 평균 3만9992달러와 비교시 8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더 길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G7 국가 평균인 1713시간보다 20.8% 많았다.
사회보장 역시 취약했다. 우리나라의 실

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은 지난 2014년 기준 10.1%지만, 비슷한 경제력을 보였을 때의 G7 국가들은 25.2%였다. 같은 기간 사회적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개선율도 우리나라는 11.4%지만, G7 국가 평균은 31.5%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 (14.4%)는 G7 국가 평균(11.8%)보다 2.6%p 열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계속해 외면하고 고속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미명 아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계속해 외면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견줄 수 없고, 이들에 발목이 잡혀 4차 산업혁명에 선두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마이클 포터 교수의 말처럼 단

순한 기업의 이윤이 아닌 경제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 포함할 신기업가정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희경 카이스트 부총장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2·3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성장과정을 거쳤다”며 “4차 산업혁명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착한 산업혁명, 즉 성장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기업의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투자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보험사 ‘빚’으로 자본확충... 지난해 4배 늘어

13곳 3.5兆 후순위채·영구채권 발행

보험사들이 빚을 내 자본을 확충한 규모가 지난해 4배 넘게 증가했다.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3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3조5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을 발행했다. 후순위채와 영구채는 일정 규모까지 자본으로 인정된다.
발행 규모는 지난 2016년 6650억원(후순위채 5210억원·신종자본증권 1440억원)의 약 5.3배에 달했다. 이보다 1년 전인 2015년에는 후순위채 2천630억원이 전부였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없었다.
발행이 급증한 것은 자본·회계기준 강화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된다.
IFRS 17과 K-ICS는 보험부채를 과거보다 늘리는 만큼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정확

(보험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이 및 계획)

연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구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시기
2015	2630	0	2630	메리츠화재	1000	0	4월
2016	5210	1440	6650	한화생명	0	10700	4월
2017	17750	17350	35100	KDB생명	0	2140	5월
2018	3600	36380	39980	신한생명	2000	0	6월
				롯데손해보험	600	0	6월
				교보생명	0	10700	7월
				현대해상	0	7490	3분기
				동양생명	0	5350	하반기

한 자본 확충 규모는 미정이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생사를 가를 정도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보험사들이 앞다퉀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저성장보험을 많이 팔았던 생명보험사 위주였던 것에 손해보험사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000억원, 5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농협생명은 후순위채로 5000억원을 조달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850억원에

후순위채 1500억원을 더한 6000억원을 발행했다. 손해보험계에서도 현대해상이 5000억원, DB손해보험이 4990억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크다. 이미 8개 생·손보사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쳤거나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최대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가 후순위채 1000억원을 발행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5000억원에 이어 올 4월 신종자본증권 1조7000억원 을 또 찍었다. KDB생명은 지난달 2140억원

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후순위채도 연내 발행할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이달 중 최대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해 11월 900억원에 이어 이번달에 600억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더 끌어모은다. 교보생명이 7월 중 최대 1조7000억원, 현대해상이 3분기 중 최대 7490억원, 동양생명이 하반기 중 53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후순위채든 신종자본증권이든 어디까지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빚’이라는 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KDB생명이 올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금리가 7.14%에 달하는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을 웃도는 조달비용을 지불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행이 늘수록 더 손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 발행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채무 방식의 자본 확충에 앞서 ‘현금 투입’을 대주주와 경영진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통일로 가는 길목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2시간대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예약 99% (2주전 예약시)

595만원

등기제 분양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저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 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 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일본 니가타 골프 창립 회원 모집

그린피,온천 무제한 무료 골프우드 + 청광아이즈CC 창립회원 모집, 동북지방 해발 600m 고원지대

답사라운딩
올포함 중식별도
7월 129만원

북해도보다 시원한 골프! 여름평균 23℃

회원혜택 495만원 / 2인 그린피 무료

- ◆ 천연온천 무제한 무료 / 2곳 골프장 그린피 무제한 무료
- ◆ 골프장에서 회원증 발급 / 10년 만기후 연장가능
-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골프장 회원혜택

- 〈일본〉
일본 10대 명문 골프장
고마츠 기타야마치 4월 13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송영차량)
- 해발 1300m 시원한 골프
마다리오 텡그현 4월 11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송영차량)
- 아와지 스프링스 4월 9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카트비, 송영차량)
- 북해도 루스초 4월 11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카트비, 송영차량)
- 〈중국〉
올란바토르 관광/골프 5월 179만원 -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카트, 렌터카, 렌터카)
- 〈사이판〉
라오리오베이 5월 85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중국〉
위해 호랑기C.C 3월 599,000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말레이시아〉
가을 숲속이 조망되는 휴가 / 주말라운딩 / 해발 850m
바자이일 9월 149만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가을 숲속이 조망되는 휴가 / 주말라운딩 / 5성급 호텔
문태레즈C.C 9월 139만원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가을 숲속이 조망되는 휴가 / 주말라운딩 / 5성급 호텔
글린베리C.C 6월 129만원 (항공료,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렌터카)
- 〈미국〉
망록 카오차족C.C 10월 129만원
망록 타이니스타C.C 6월 119만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카오야이 피노라미 10월 135만원 (해발 2700m 울트라 뷰, 렌터카 포함)
- 〈라오스〉
카오야이 6월 69만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필리핀〉
마닐라 KC힐크레스트 5월 49만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마닐라 스텔렌디도 5월 59만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 클락 뉴아시아 5월 69만원 (항공료, 숙식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 전용카, 렌터카 포함)

태국 치앙라이 답사

치앙마이 보다 시~원한!
은퇴 이민의 천국 치앙라이

- 2018. 07. 08 - 07. 12 (선착순 30명)
- 비용 : 139만원 (왕복항공료, 골프, 호텔 2인1실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 해발 450m 고원 휴양 도시, 연평균 22℃ 치앙라이
- 골프 · 휴양 · 의료 서비스 · 은퇴 이민 천국
- 동 · 하계 Long Stay 체험
- 태국 관광청 지원, 오리엔테이션 (부동산, 이민권, 의료, 호텔, 레지던스 관련)

IL tour 02-541-4242

※ 실제 전경입니다.

Poshill 명품 타운 하우스

남한강과 용문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양평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사업지

- 송파 - 양평간 고속도로 2023년 개통예정 ▶ 송파 15분
- 제 2외곽 순환고속도로 2020년 개통예정 ▶ 수도권 빠른 이동
- 서울 동부권 잠실 / 송파 / 아남과 성남 / 분당 / 죽전에서 차량으로 40분대에 사업지 도착 가능

※ 현장 방문시 홍보관 볼 수 있습니다.

http://trebium.com/
시공사, 포스힐 문의 : 031) 774 - 8222

코나·제네시스·싼타페, 현대기아차 다시 뛰게하는 ‘심장’

〈SUV〉

〈G70〉

〈신형〉

3분기 미국·중국서 판매 호조 전망
美 신차투입으로 성장세 전환 기대
노조 파업·지배구조개편은 과제로

피터 린치.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매니저이자 마젤란펀드를 세계 최대 뮤추얼펀드로 키운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1977년 마젤란펀드의 운용을 처음으로 맡은 그는 1982년 경기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크라이슬러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린치를 “미쳤다”고 몰아 세웠지만 그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과 같이 확실한 명제는 바로 미국인이 자동차를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주에 대한 생각을 “피터 린치에 묻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당장 국내 시선은 우려 그 자체다. 실적 회복이 더뎠다.

현대차는 지난 1분기 매출 22조4366억원, 영업이익 681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 45.5% 줄었다. 영업이익 1조원이 깨진 것은 물론 증권가 전망치(9718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 의지와 실적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투자 할 만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현대차 주요 공장별 생산능력과 생산모델 현황

공정	생산능력(만대)	생산모델
한국	울산 #1~5	엑센트, 벨로스터, 코나, 싼타페, i40, 아반떼, 아이오닉, i30, 맥스크루즈,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 G90, G80, 제네시스 쿠페, 투싼
	아산	그랜저, 그랜저 HEV, 쏘나타, 쏘나타 HEV, 아슬란
	전주	트럭, 버스
중국	베이징 #1~3	XD(엘란트라), 베르나(엑센트), 투싼, HD(엘란트라 위예중), YF쏘나타
	창저우 #4	신형베르나(위예나)
	충칭 #5	루이나, 엔씨노
	쓰촨	상용차
미국	앨라배마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기타/현대차, EK투자증권

정 부회장은 베이징모터쇼에서 실적 회복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현대차 (중국 시장) 판매 목표는 90만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 이슈 이후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해 정 부회장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고 올해 신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싼타페 신화 해외에서도 나타날까

현대차그룹이 기대 만큼 달려 줄까. 시장에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우려했던 것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 있다. 소형 SUV ‘코나’와 ‘제네시스 G70’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신형 싼타페가 하반기 실적을 이끌 것이라 기대에서다.

하지만 비판적인 전망도 여전히 만만찮다. 중국시장의 회복세가 아직은 더딘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자동차의 1분기 실적은 원화 강세와 부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2분기에도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3분기부터 신차투입을 기반으로 중국·미국 판매가 회복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내 기저가 크게 낮아지고 싼타페와 K3 등 신차가 투입되면서 2분기 출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4%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상반기 전체로는 1%, 2% 증가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낮은 기저와 순차적인 신차투입에 힘입어 하반기 출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 1% 늘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원은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

가 17만원을 유지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내수시장에서 싼타페와 그랜저의 쌍끌이 판매가 실적 회복을 이끌고, 중장기적으로는 SUV라인업 확대와 신형엔진 출시로 반등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매수)과 목표주가(18만5000원)를 유지했다.

메리츠증권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신차효과로 3~4월 내수 및 중국 시장에서 보인 판매 호조가 연중 지속될 것”이라며 “2017년 중국 관련 정치적 이슈, 엔진 리콜 등의 악재도 해소돼 현대차 생산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인센티브 또한 재고 감소와 신차 출시를 통해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시장은 싼타페의 현지생산을 시작으로 6~7월 사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걱정은 노조의 파업이다. 김진우 연구원은 “파업이나 원화 강세 등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국내 공장 가동률이 90%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동일한 파업에도 고정비 부담이 더욱 컸다”고 분석했다.

기아자동차도 장밋빛 전망이 하나 돌아온다. 삼성증권 임은영 연구원은 “기아차의 미국 재고는 1월 5.1개월치에서 4월 말 4.2개월치로 감소했고 회사 측은 6월 말까지 3개월치 도달이 가능하다”며 “재고 감소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임 연구원은 “미국 재고가 1개월치 줄 때 잉여현금흐름(FCF)은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아차가 미국 재고 축소와 멕시코 및 중국 공장의 가동률 향상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현대차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편은 해결과제

우려되는 부문도 있다. 엘리트의 탄지 걸기에 발목이 잡힌 지배구조개편 문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 추진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순환출자구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 해소는 지연되게 됐다”면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재검토 발표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향후 우호적 개편안 재추진에 따른 지분가치 개선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지배구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이탈 오버행(잠재적 매물) 이슈로 주목 받지 못했던 펀더멘털 개선 (3~4월 두 달 연속 가동률 개선 및 인센티브 하락 실현, 이 같은 판매 방향성 지속전망)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주주친화정책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 전략 체계화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의 재평가가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완성차 5월 내수판매 1.3% 감소 현대·기아 ‘웃고’ 지엠·르노 ‘울고’

현대·기아차 싼타페·K9 신차효과
르노삼성 내수침체 여전 ‘최하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달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국내 1·2위인 현대·기아자동차는 신차 효과에 힘입어 판매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경영 정상화 계획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5사의 5월 내수 판매실적은 도합 13만 3663대로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업체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차는 5월 국내 시장에서 5만1896대를 판매하며 2.1%의 증가를 기록했다. 신형 싼타페가 1만668대로 3개월 연속 국내 최대 판매차종 자리를 지킨 가운데 그랜저도 2개월 만에 월 1만대(1만436대) 판매차종에 복귀하며 판매 실적을 이끌었다.

기아차는 5월 8.1% 증가한 4만7046대를 국내 시장에 팔았다. 신차 효과에 힘입어 완성차 5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전년 동월대비 35.3% 감소한 7670대를 기록했다.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된 2월 이후 3개월간 50% 가량 내수 판매 감소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아직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경차 스

파크는 지난달 페이스모델 ‘더 뉴 스파크’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 30.3% 감소한 2566대가 판매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SM6, QM3 등 주력 모델들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내수 판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20.4% 감소한 7342대로 완성차 5사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달 준수부터 르노삼성이 수입 판매를 개시한 르노 클리오도 2주만에 756대가 출고됐으나 전체 판매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9709대를 국내 시장에 판매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 4.2% 감소했으나 주력 모델인 티볼리의 모델 노후화, 플래그십 모델인 G4 렉스턴의 신차효과 반감 등을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르노삼성을 제외하고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5월 해외에서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한 32만5121대를 판매했으며 기아차는 8.1% 증가한 20만130대의 해외 판매실적을 거뒀다. 한국GM은 6.3% 증가한 3만 3209대를 수출하며 간만에 증가세를 보였고, 쌍용차도 렉스턴 브랜드의 수출 개시에 힘입어 53% 증가한 3229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벌써 덥다 물놀이 최고!’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 3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물빛광장 주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철뉴스

“보호무역 강화에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2015년 13.2%까지 하락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2012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이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면서 국가 간 가치사슬 확산이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전 세계 GVC 참여도는 지난 2008년 14.1%를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했다.

GVC 참여도는 세계 GDP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GVC는 제품의 설계 및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 체계를 일컫는다.

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GVC

가 약화됐다. GVC 참여유형별로는 국가 간 분업 정도가 높은 복합 GVC가 더 약화됐다.

지난 2001년에서 2008년 중 선진국 및 신흥국은 각각 4.4%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지만 2012년에서 2015년 중에는 각각 0.2%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베트남이 8.2%포인트, 한국이 3.2%포인트, 중국이 2.5%포인트 등으로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후방참여(해외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가 전기·전자로 중심으로 크게 약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참여도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의 후방참여도는 전기·전자(-3.1%포인트), 금속제품(-1.6%포인트), 섬유·가죽(-1.6%포인트) 등 급락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가 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

동이 저해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이 제약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에서 2017년 중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건수는 2009년에서 2011년 대비 연평균 219건 증가한 반면 자유무역 조치는 108건 증가에 그쳤다. 수입관세율은 1990년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2000년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기조 확대는 국가 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을 제약한다”며 “GVC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이 내수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하면서 제조업의 글로벌 수직적 분업이 약해진 것도 GVC 약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 “신흥국의 임금 상승, 선진국의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생산비용 격차가 줄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된 점도 GVC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해양쓰레기에 뒤덮힌 연안... 수거·재활용대책 시급

매년 해양쓰레기 18만톤 달해 수거 7~8만톤 불과... 피해 초래 플라스틱쓰레기 해양유입 막고 예방·수거 넘어 재활용 확대해야



지난 5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서부두에서 해군 2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이 해경, 해양수산청, 해양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18만톤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년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18만톤 중에서 약 7~8만톤 가량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약 10만여 톤의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까지 145.9톤/인당으로 증가할 것

로 추정돼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어패류를 인간들이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이 지난 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보고

서에 따르면 연간 해양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약 480만톤에서 12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환

경제회(UNEP)은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를 예방 및 획기적 저감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외국은 재활용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KMI의 설명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업용 쓰레기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EU 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해 유럽 9개국에서 폐기물 수집·분류시설과 재활용 공장을 연계해 폐어망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폐어망에서 금속을 제거한 후 남은 폐합성수지를 소각 처리해 회수한 열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일본은 페스티로폼 부표를 펠릿으로 가공해 해조류 자숙용 보일러 혹은 축융용 보일러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한 운동화, 선글라스, 스케이트

보드 등 업사이클링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추출한 원사로 제작한 수영복, 운동복 등이 상품화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를 설립해 재활용 기술 및 정책개발,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정 KMI 전문연구원은 "공공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하여야 하며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해수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될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정부인증 시험·검사 신뢰도 높인다

정부,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기간 준수·정보제공 확대 등 나서

정부는 3일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구성됐다.

우선 시험·검사 준수와 관련해 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해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

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별로 인력 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채용 및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여건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용산 붕괴현장 수색하는 구조대원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극복 돕는다

산업부, 현장컨설팅 사업 시행

정부가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에 대상

으로 실시한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고 88%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에 국표원은 올해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과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특허청, '프로젝트 R&D' 공동 추진

특허·R&D·사업화 등 일괄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도입된 '프로젝트 R&D(Project-R&D)' 과제를 양 부처가 공동 지원한다.

프로젝트 R&D 과제는 공동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 특허,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묶음으로 제공해 기업간 자발적·수평적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업 5개사 이상, 지원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양 부처의 공동지원 방침에 따라 이번 과제는 한번의 신청 및 평가로 특허분석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농촌건축대전' 29일까지 공모

농식품부-농어촌공-농촌건축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공동으로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한국농촌건축대전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결정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65세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등에게 문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의 심사절차



를 통해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ise.go.kr/ruralarchi)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 건설현장 등 온열질환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노동자의 열사병 재해가 많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장시간 폭염에 노출돼 걸리는 병이다. 어지럼증, 발열, 구토 등의 초기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

해는 모두 16건(사망자 2명)이며 절반인 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돼야 하고 작업장 근처에 차양 등으로 만든 그늘이 있어야 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휴식해야 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전남지사 후보들 '휴일 선거전'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요일인 3일 각 정당 전남지사 후보들이 휴일 거리로 나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형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 /연합뉴스

광주상의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환영"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참여 의향서 제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상의는 성명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온 민선 6기 핵심사업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완성차 기업의 투자는 노사 상생에 기반을 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이제야 비로소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 설립이 본궤도에 올라 적정 근로와 임금, 원하청 간 상생 발전, 안정적 노사관계라는 결실을 거두면 자동차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업이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노조도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시 5·18 행방불명자 가족찾기 기간 연장

광주광역시시는 5·18 행방 불명자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혈액 채취 신청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였으나 30명이 접수하는데 그쳐 더 많은 확보를 위해 추가로 한 달 연장했다. 혈액 채취 대상은 5·18행방불명자의 부모, 자녀, 형제로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방불명 유가족 혈액은 향후 암매장 발굴

등 유골 발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각종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채혈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신청이 저조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 등 가족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초 전국 시·도와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5·18행방불명자 가족 찾기'를 공고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광주·전남 '나들이객' 표심잡기

지자체장·교육감 후보 등
오일장·번화가서 지지 호소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 동안 광주·전남 후보들이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정치 기반인 광주 광산구를 찾아 영광동 사거리로 중심으로 집중유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도 광산구 송정5일시장과 첨단 쌍암 공원을 찾아 중장년층부터 자녀와 나들이 나온 30~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표발을 누렸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전남대 후문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북구에 거점을 두고 유세를 벌였다.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대담 녹화와 광주 영어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한 뒤 광산구 쌍암동 첨단LC타워 사거리에서 시민과 만났다. 전남지사 후보들도 전남 동·서부를 아우르며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오전부터 곡성·구례읍 오일장 등을 돌며 상인과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이개호·송영길·이종걸 의원 등도 지원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곡성 읍장 유세, 교회 예배에 이어 장흥·강진 터미널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역·평화광장과 영암·무안 등에서 유세를 하며 서남권 공략에 집중했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이정미 당 대표와 함께 곡성 오일장을 시작으로 광양, 순천, 여수 등 동부권 순회 유세에 나섰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도 구례·나주·화순·곡성 장터 등을 돌며 당과 자신에 대한 성원을 부탁했다.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오일장과 종교 시설, 번화가 등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는 1913 광주 송정역시장에서, 장회국 광주교육감 후보는 풍암 저수지에서 열린 유세전을 펼쳤다. 최영태 광주교육감 후보는 종교시설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기아 챔피언스필드 등을 찾아 집중유세를 했다.

고석규 전남교육감 후보는 구례·여수·순천·목포 등 동·서부권 오일장과 종교 시설에서, 오인성 전남교육감 후보는 순천·무안·목포의 종교시설과 번화가에서 유세를 벌였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는 순천·화순·목포·해남·여수 등 전남 전역의 시장과 종교 시설, 아웃렛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들도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광천동 성당과 광천교회, 치평동 조기 축구회, 상가 등을 돌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 평화당 김병진 후보도 서문교회를 시작으로 금호월드, 동천동·치평동 번화가를 돌며 거리 인사를 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서삼석 후보는 신안 지도와 중도, 임자도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평화당 이윤석 후보도 이날 오전 신안 지도읍 오일장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같은 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과 함께 합동 유세를 하며 세말에 나섰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i@metroseoul.co.kr

여수낭만버스, 탑승률 '100%'로 달린다

여수 야경·바다·뮤지컬·공연 접목
SNS후기·낭만엽서 등 이벤트 다채



지난 19일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여수의 야경과 바다, 뮤지컬과 공연을 접목한 관광 상품인 '여수낭만버스'가 올해 9차례 운영되는 동안 탑승률 100%를 기록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올해 첫 여행을 시작한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9회차를 맞은 지난달 말까지 탑승률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 첫해였던 지난해 탑승 인원 1535명, 평균 탑승률 98%를 기록했다. 여수 이순신 광장을 출발해 소호동동다리, 여문문화의거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 등을 거치는 2시간 코스로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행한다. 특히 지난해 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공연 장르는 연극에서 뮤지컬로 변경돼 세 요정이 낭만버스에서 별이 사랑이야기를 전한다. 트럼펫 연주가 가능한 밴드가 합

류해 탑승객에게 더욱 풍성한 연주를 전한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랑의세레나데, 낭만엽서 보내기 등 이벤트에 더해 SNS 탑승 후기 작성 이벤트도 추진한다.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심사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

다. 요금은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5000원, 미취학아동 1만원이다. 여수시민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여수시는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뮤지컬과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탑승문의가 빛발치고 있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 콘텐츠를 개발하고 탑승객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 김남중 기자

진도 야생식물 무단채취·밀반출 벌미

지난 5월 말 조도면 하조도에서 하수우와 천문동 등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한 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섬 밖으로 밀반출을 시도하려던 H모씨를 지역주민, 국립공원지킴이,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가 합동으로 적발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이번 밀반출 사건은 선박과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단속을 피하려 한 신중 수법으로 단속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노

력이 무엇보다 빛났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협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중한 자산인 국립공원 내 자원을 보호하는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신안군과 진도군에 위치한 총 204개의 유·

무인도서를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약 13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행위 등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순찰이 어려운 주요 도서지역에 자원 보호단 20명과 국립공원지킴이 19명을 전진 배치시키고, 지역주민들과 공원자원 보호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 진도 = 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15兆 배달공화국’... 상부상조로 몸집 키운다

중기중앙회

“사업재기 성공 소상공인 ‘힐링캠프’서 힐링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재기자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재기에 성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힐링캠프는 이달 22~23일, 23~24일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동안 나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는 사업재기자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業(업)의 의미와 가치 찾기’,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다지고, 노란우산공제 전 명예홍보대사인 방승민 김학래(차이나리전) 대표의 ‘성공과 실패 이유가 있다’ 주제의 특강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도 들을 수 있다.

힐링캠프는 사업재기에 성공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경영인 경우엔 가족도 동반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배달앱-배달대행업체 간 O2O 서비스로 시너지 UP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고용 대신 대행업체 이용 늘어 반사이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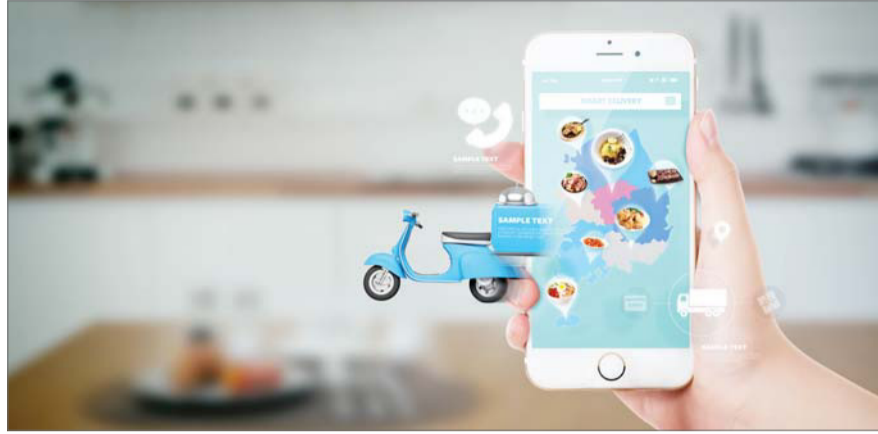
국내 배달음식 시장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산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배달대행업체와의 협력과 적극적 투자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배달음식점과 주문자를 연결해주는 배달 앱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중계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조~3조 원으로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아직까지 오프라인을 통한 배달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배달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인건비가 덜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노원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유투이미지

“우리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데 배달 주문이 있을 때마다 라이더가 와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편리하고 배달 건수에 따라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전에 라이더를 고용했을 때보다 인건비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외에도 주문 접수, 매장 청소 등의 업무까지 하는 중국집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로 배달앱은 배달대행업체와 손을 잡으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지난 5월 이륜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에 시리즈 A 투자를 했다.

바로고는 한 달 평균 200만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대행 회사로 등록 라이더 수만 전국적으로 3만 여명에 이른다. 월 평균 배달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확한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역대 스타트업의 시리즈 A 투자 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2015년 7월 대행업체 두 바퀴를 인수하며 자체 배달 대행 서비스 배민라이더스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찾고 ‘배달팁(배달비용)’을 추가로 내면 집으로 원하는 음식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IT기업도 배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4월부터 배달의민족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음식 주문부터 결제(네이버페이)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하는 우아한형제들에 35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5%를 확보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닌 개인 사업자도 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3분기 중 입점 절차를 마무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기존에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외식 주문중개 플랫폼 ‘씨앤티테크’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전문회사 ‘생각대로’, ‘TNB’ 등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단순히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배달까지 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배달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서훈 기자 yun2514@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인도 등에 ‘시장개척단’ 파견

중기중앙회는 인도, 러시아·세르비아에 ‘시장개척단’ (시개단)을 각각 파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인도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뉴델리와 콜카타 지역에 9개 기업으로 구성된 시개단을 파견해 174건, 7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1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개단이 현지를 다녀왔다. 모스크바에선 41건, 301만7000달러, 베오그라드에선 67건, 607만2000달러 등 총 108건, 908만9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각각 진행했다. 인도 시개단 참석자들이 콜카타 현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인도, 러시아·세르비아에 ‘시장개척단’ (시개단)을 각각 파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인도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뉴델리와 콜카타 지역에 9개 기업으로 구성된 시개단을 파견해 174건, 7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1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개단이 현지를 다녀왔다. 모스크바에선 41건, 301만7000달러, 베오그라드에선 67건, 607만2000달러 등 총 108건, 908만9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각각 진행했다. 인도 시개단 참석자들이 콜카타 현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술창업 ‘팁스’ 운영사 6곳 추가

38곳서 44곳으로 확대

매쉬업엔젤스, 메디톡스벤처투자, 서울대기술지주 등 6곳이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운영사)이 창업팀을 선별해 민간투자자와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계해주고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팁스 운영사는 44개로 늘어났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한 23개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매쉬업엔젤스는 다음을 창업한 이택경 대표의 성공 경험과 국내 민간 1호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팁스 운영사)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엔젤투자회사다.

메디톡스벤처투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톡스가 출자한 벤처캐피탈로, 창업주인 정현호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모회사의 기술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창업팀을 육성할 계획이다.

에이치지이니셔티브는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해 소셜 벤처의 투자·보육실적을 보유한 소셜 투자전문회사로, 소셜 벤처들의 팁스 참여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운영사는 3년의 사업권을 갖고 올해 창업팀 추천권을 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창업팀 지원 대상으로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한 팁스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포스트 팁스’를 신설하는 등 혁신창업 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팁스에 참여한 창업팀은 지난 달 기준 440개로 집계됐다.

이들 팀은 엔젤투자 893억원(팀당 평균 2억원)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R&D 1501억원, 창업사업화 212억3000만원, 해외마케팅 148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팁스로 유지한 국내외 민간투자 규모는 6958억원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떠오르는 ‘이너뷰티’... 전기식 잇단 출사표

(건강기능식품)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뷰티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너뷰티란 내면(inner)의 아름다움(beauty)을 추구하는 트렌드다. 바르는 화장품 등은 일시적 효과를 얻지만 이너뷰티는 인체 내부의 건강을 유지·강화하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3일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8%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 500억원 수준이던 이너뷰티 시장이 지난해 53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해 6년 새 10배 이상 성장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은 다이어트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 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소비 패턴 분석’ 패널조사에 따르면, 21~30세 연령 층에서는 체지방 감소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우수해 씹는 포만감을 선사해주는 ‘곤약 워터젤리’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천호엔케어의 ‘먹슬림’이 대표적이다. 특히 먹슬림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가능성을 인증 받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기존의 곤약 워터젤리들과 차별화됐다. 주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태반가득 콜라겐 젤리. /비타민하우스

지난해 5300억, 6년 새 10배 성장
식감·포만감·편의성·영양 갖춘
젤리·애플 제형 건강기능식품 인기
콜라겐·비오틴 등도 간편 섭취

적합하다. 또한 지방·당류·설탕 등을 사용하지 않아 150g 한 팩에 10kcal에 불과하며 달콤한 ‘복숭아 맛’과 상큼한 ‘칼라만시 맛’ 총 2종으로 구성돼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이너뷰티 시장의 터줏대감인 피부미용 건강기능식품도 여전히 인기다. 히알루론산·태반·지분자 콜라겐 등으로 원료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젤리·애플 등 편의성을 앞세운 제형의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비타민하우스는 사람의 태반과 가장 유사한 양태반을 주원료로 한 젤리형 이너뷰티 제품인 ‘태반가득 콜라겐 젤리’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청정지역인 100% 호주산 양태반 추출분말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양태반은 먹기 힘들다는 고정관념도 깬다. 비타민하우스는 라즈베리·블루베리 농축액과 베지주스를 가미해 양 특

유의 향취나 쓴맛을 없애고 상큼하고 달콤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한 포를 가방 등에 간편하게 휴대하며 이지 커팅 방식으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은 초저분자 콜라겐 3000mg을 애플 한 병에 담은 제품이다. 피부 노화를 가속하는 수면 장애를 개선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유산균 녹차 발효 추출물(GABA)’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솔가에서 선보인 ‘솔가 SNH 포뮬러’는 ‘식이유황(MSM)’을 함유해 손톱,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유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물질로 콜라겐, 케라틴 등의 원료이며 동시에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하우스의 ‘풍성한 내일’은 콜라겐뿐 아니라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피부는 물론 머릿결 등에 좋다. 비오틴은 모발과 손발톱의 주성분인 케라틴 합성에 쓰이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앞으로 2030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개념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용 기자 parku7854@



한 끼 식사, 눈으로 먼저 근사하게 먹는다

홈쿡 대세에 '테이블웨어' 인기 폭발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자 늘어나
홈쿡족, 플레이팅 일상화 '한 몫'
CJ오쇼핑 '오펜세' 본격 역량 확대

다양해진 가정간편식(HMR)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유통업체의 '테이블웨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백화점의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매출이 지난해 28.1% 성장에 이어 올해 14.3% 신장, 전체 테이블 웨어 신장세를 4배 이상 앞질렀다.

연령에 관계 없이 한 끼의 식사도 근사하게 즐기고 싶은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며 이색적인 그릇과 함께 음식을 연출하는 플레이팅이 일상화 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도 홈쿡족의 플레이팅 일상화에 한 몫하고 있다. 여러 개의 계란을 정확히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윤식당의 '에그팬', 집에서 카페에서 파는 와플을 만들 수 있는 호리네민박 '와플메이커' 또한 요리와 플레이팅 욕구에 불을 지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방송 직후 관련된 상품 문의가 급증했으며 실제 신세계몰에서 판매하는 에그팬과 와플기계는 방송을 탄 2월 말 직후부터 5월까지 전년보다 19.7%,



오펜세 아틀리에 노드. /CJ오쇼핑

24.1% 급증한 신장세를 기록 중이다.

CJ오쇼핑은 2013년 7월 선보인 테이블웨어 브랜드 '오펜세'를 tvN 윤식당에 노출시키며 본격적인 홈쿡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윤식당 방영 이후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자 지난 2월 예상 목표보다 90% 초과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 방송한 오펜세 방송에서는 목표보다 2배 많은 7억원어치의 주문을 받았다.

이어 CJ오쇼핑은 지난 5월 오펜세를 업계 최초로 '플레이팅 전문 브랜드'로 리뉴얼했다. 최근에는 롯데백화점에 단독 매장을 여는 등 매출채널 확대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중이다.

CJ&M과의 합병으로 미디어 파워를 키우고 있는 CJ오쇼핑은 오는 7월 방영을 앞두고 있는 tvN 드라마 '미스터션사인' PPL에도 오펜세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재 오펜세는 한샘 플래그십 스토어와 코스트코 입점 수를 각각 13곳과 12곳으로 늘렸다. 오펜세는 오는 8월까지 롯데, 현대, AK 등 백화점 매장 수를 기존 10곳에서 20 곳으로 늘리는 한편 CJ몰을 포함한 G마켓, GS샵, 옥션, 네이버 등의 주요 온라인몰에서도 매출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CJ오쇼핑은 오펜세를 올해 150억 원의 매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심영철 CJ오쇼핑 오펜세팀 부장은 "윤식당을 통해 오펜세를 활용한 다양한 플레이팅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이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며 "올해는 합병법인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려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n6326@metrosoul.co.kr

Advertorial Corner

더페이스샵 '제로핏 프라이머' 2종

은은하게 빛 더해주는 '루미에르'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포어리스'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피부 요철과 모공을 가려주고 피부에 수분과 은은한 광을 더해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 바탕을 연출하는 '제로핏 프라이머' 2종(사진)을 출시했다.

제로핏 프라이머는 쿠션 또는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는 프라이머 제품이다. 피부에 은은한 광을 더해주는 '제로핏 프라이머 루미에르'와 울퉁불퉁한 모공을 가려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제로핏 프라이머 포어리스'로 출시됐다.

제로핏 프라이머 루미에르는 은은한 루미너스 필이 함유된 수분 볼륨 베이스가 번들거리거나 들뜨지 않고 피부에 가볍게 밀착된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연출되는 미세 리플렉팅 피그먼트가 함유, 피부에 조명을 켜 듯 화사한 광채를 부여하고 안티드크닝 효과로 시간이 지나도 칙칙함 없이 오랜 시간 투명한 피부 컬러를 유지시킨다.

제로핏 프라이머 포어리스는 피부 요철과 모공을 가려 고른 피부결로 매끈하게 정돈해주는 프라이머다. 피지 흡착 성분이 함유돼 번들거림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하게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준다. 푸른 추출물과 로즈꽃

오일 등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젤 타입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더페이스샵 담당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 피지나 땀 분비가 늘기 때문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메이크업 단계 전에 피부 밑바탕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로핏 프라이머는 피부 결점을 가려주고 다음 단계의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필수제품"이라고 말했다.

더페이스샵 제로핏 프라이머 2종은 전국 더페이스샵 및 네이처컬렉션 매장 공식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베스킨라빈스가 운영하고 있는 뉴욕 길거리 문화를 모티브로 한 콘셉트 스토어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왼쪽)와 모나미 컨셉스토어 DDP 전경. /SPC·유재희 기자

나도 모르게 발길 이끄는 이색 '컨셉스토어'

브랜드 경험으로 소비 욕구 일컫
특화제품·단독판매 등 특장점 확대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컨셉스토어가 이목을 끌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베스킨라빈스, 모나미 등 컨셉스토어는 매장에 자사 브랜드의 독특한 컨셉을 입히고, 고객이 직접 브랜드를 경험해볼 수 있게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성 가득 '배라 31Street'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스킨라빈스는 지난 4월 뉴욕 길거리 문화를 모티브로 한 콘셉트 스토어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를 오픈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위치한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는 그래피티를 모티브로 한 콘셉트 스토어다.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는 아티스트 '샘바이펜(김세동)'과의 협업으로 서로 다른 예술, 패션, 음식 등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는 뉴욕 스트리트 컬처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베스킨라빈스 측은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층과 소통하고 있는 샘바이펜 작가의 역량이 베스킨

라빈스의 감성과 어우러지면서 방문객들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디저트 메뉴 3종을 선보인다. 테이크아웃 전용 제품인 캔 아이스크림 '싱글캔', 아이스크림 햄버거를 형상화한 '아이스크림 브리젤라', 브라우니와 초코칩 쿠키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브루키 샌드' 3종이다.

이밖에 '아이스크림 팡팡게임'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월 '해피월'을 선보인다.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 오픈을 기념해 7월5일까지 게임도 즐기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팡팡터지는 해피월 토너먼트' 이벤트도 진행한다.

베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베스킨라빈스31스트리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만의 펜은 '모나미 스토어'

50년을 넘게 국민들의 손에 쥐여졌던 모나미도 컨셉스토어를 마련해 소비자의 소통에 힘을 싣고 있다.

모나미는 지난 2015년 홍대점을 시작으로 브랜드 컨셉스토어를 선보이고 있다. 모나미 컨셉스토어는 현재 총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소재 모나미 본사의 1층 위치한 '스

토리 연구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점, 에버랜드점, 부산 롯데점이다.

각 지점은 공간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구현해 '모나미' 브랜드 정체성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모나미 컨셉스토어 DDP 점에서는 '153DIY 볼펜'을 단독으로 판매한다.

'153DIY'는 1963년 출시한 153펜의 하얀색과 검은색의 기존의 관념을 깨고 DIY(DO it Yourself)를 통해 직접 나만의 펜으로 만들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모나미 153 볼펜을 14가지 색깔의 리필심, 보디 부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원하는 컬러 구성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펜을 소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153DIY 프로그램은 다른 지점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모나미 측은 용인 본사의 컨셉스토어인 스토리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년필 잉크DIY 프로그램 '잉크랩(Ink LAB)'의 이용객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잉크랩에선 소비자가 직접 잉크를 만들 수 있다. 또 잉크랩에서 만들어진 잉크는 모나미 만년필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잉크랩은 지난해 12월 용인 수지의 컨셉스토어 오픈과 동시에 첫 선을 보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현대백, 카드회원 대상 '스마일 워크' 진행

구매금액대별 파격적 할인 혜택

현대백화점이 300만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구매금액대별 7.5% 상품권 증정, 6개월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15개 전 점포에서 현대백화점카드 회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스마일 워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6일부터 10일, 15일부터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의류·잡화 상품군에서 구매하면 구매금액대별 7.5%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보통 백화점에서 구매 금액대별 최대 5% 사은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엔 그 증정율을 1.5배 높인 것이다.

현대백화점카드 회원들은 단일 브랜드에서 20만원·40만원·80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5000원·3만원·6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행사에는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참여 브랜드 및 적용기준은 각 점포 및 상품군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백화점 홈



현대백화점이 오는 8월부터 6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스마일리의 웃는 표정을 새긴 여행용 캐리어를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6일부터 10일까지 해외패션·준보석·가전 등 고가 상품군을 현대백화점카드 구매하는 고객에게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최근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에게도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은 8일부터 '스마일 워크'를 위해 특별 제작한 구매 기프트도 증정한다. 모든 구매고객에게 스마일리 캐리어가 새겨진 스티커를 증정하고 6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스마일리의 웃는 표정을 새긴 여행용 캐리어를 각각 증정한다. /김유진 기자

아워홈

'한입 만두카츠' 세가지 맛

아워홈은 이색 간식 가정간편식 제품 '한입 만두카츠' 3종(사진)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처음 선보인 '한입 만두카츠'는 이번엔 김치와 치즈, 피자세가지 맛의 제품을 새롭게 내놨다.

아워홈 '한입 만두카츠'는 번거롭게 튀기지 않아도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편의성까지 갖췄다.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자작하게 두른 후 약 5분간 구워주면 술 안주나 아이들 간식을 간단히 완성할 수 있다.

'한입 만두카츠' 신제품 3종의 소비자가격은 4980원이며, 아워홈 공식 온라인 쇼핑몰 '아워홈몰'을 비롯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국GM, '인천 경제 살리기 워킹페스티벌' 개최

인천장애인 위해 스파크 기증도

한국지엠(GM)이 '쉐보레와 함께하는 인천경제 살리기 워킹 페스티벌'을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경기 대회에는 한국GM과 협력사 임직원 가족, 인천 시민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앞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GM을 지지해준 지역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 임한택 노조 지부장, 조니 살다나 GM 해외사업부문 구매 부사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송도 국제업무지구 일대 5km 구간을 걷고 인기가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었다.

행사와 더불어 한국GM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협신회를 통해 인천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쉐보레 스파크 1대를 기증했다. 기



한국지엠 및 협력사 임직원, 인천시민 2만여명이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인천경제 살리기 워킹 페스티벌'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다짐하고 인천 장애인 기관에 쉐보레 스파크를 기증했다. /한국GM

증된 스파크는 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등 인천 지역 장애인 보호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신형 스파크를 출시한 쉐보레는 내수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고객에 초점을 맞춘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

난 5월 11일부터 매일 1명씩 스파크를 경품으로 추첨하는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오는 8월 18일까지 총 100명의 당첨 고객에게 스파크 100대를 증정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수력원자력 전통시장 구매물품 아동센터에 기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전통시장인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물품을 구입, 경주 동천동 소재 푸르른지역아동센터 등 4개 지역아동센터에 이를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한수원은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총 3200만원 어치에 달하는 물품을 매달 전통시장 장보

기 행사를 통해 구입, 경주지역내 아동센터에 순차적으로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 장보기 예산은 본사 전직원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러브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수원 전영택 기획본부장(맨 왼쪽)이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4월 21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겨울인가 했더니 매화가 피었으니 희망이 가까이 있다. 60년생 좀 부족한 게 좋다. 72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84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이다.
- 소** 49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61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3년생 금전 문제로 주변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8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라.
- 호랑이** 50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62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74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니 바른 사고를 지녀라. 86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행동할 때이다.
- 토끼** 51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75년생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딸 듯한 기세이나 자중할 때. 87년생 부는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든다 갈증이 생긴다.
- 말** 52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거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64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76년생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 88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니 힘껏 노를 저어야 할 때.
- 뱀** 53년생 오늘 힘들어도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 법이다. 65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77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갈 길이 보인다.

- 말** 54년생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자손에게 조언을 구하라. 66년생 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78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진행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90년생 상사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양** 5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67년생 99%의 노력도 1%의 영감으로 결실을 본다. 79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해라. 9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 원숭이** 56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최선이다. 6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0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날. 92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먹을 수 있다.
- 닭** 5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개가 필요한 날이다. 69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시도해 보라. 81년생 하나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93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하라.
- 개** 58년생 모난 돌이 정 맛은 법이니 오늘은 나서지 말라. 7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이다. 82년생 아랫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94년생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하라.
- 돼지** 59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71년생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다. 83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 95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9		7	8	5	2
	2	4		7	
			6	3	4
	9		3		1
1	6		2		
	7			6	9
3	4		1	2	8
	1			8	3

	3	6		4		7	1	
2				1				5
1			2		7			8
		3				5		
		4		5		6		
	5		7	6	2		4	
	6						7	
	7		6	3	1		5	
5		4		8				6

스도쿠 정답								
9	8	4	8	7	6	1	5	
8	5	2	6	1	4	7	9	3
1	6	7	9	5	8	3	2	4
4	8	6	7	2	5	9	3	1
5	1	9	4	8	7	6	2	3
7	2	1	9	6	5	3	8	4
3	8	5	6	7	1	2	9	4
2	9	5	8	1	4	7	6	3
6	7	1	2	9	3	5	8	4
9	3	8	4	7	6	1	5	2
6	5	8	1	9	2	4	7	3
7	4	1	6	2	5	8	9	3
3	7	6	2	9	4	1	5	8
1	8	9	5	6	7	4	2	3
2	9	5	8	1	4	7	6	3
5	6	7	9	1	3	8	2	4
4	1	2	5	7	8	9	6	3

문제 제공= 보노스

새로 나온 책

그녀 이름은

다산책방/조남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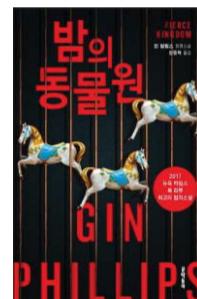
70만 독자를 사로잡은 '82년생 김지영' 작가 조남주가 2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소설집이자, 작가의 첫 소설집이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그녀'들의 이야기가 '그녀 이름은'에서 다채롭게, 보다 당당하게 펼쳐진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대한민국 '그녀'들의 땀과 눈물로 완성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다.

조남주 작가는 '82년생 김지영' 출간 이후 "특별하지 않고 별일도 아닌" 아니, 그렇다고 여겨져온 여성들의 삶을 "더 많이 드러내고 기록"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후 살부터 일흔이홉 살까지 60여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한 이야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향신문'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로 연재됐다. 그녀들이 '별일도 아닌데'라며 운을 댄, 그러기에 작가가 더 경청한 저마다의 인생은 소설로 다시 쓰이고 28편의 이야기로 묶여 '그녀 이름은'으로 선보이게 됐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뉴스에서, 겪거나 목격했지만 '별일 아니'라며 스스로 삼켜버린 이야기들이 비로소 목소리를 찾은 것이다.

276쪽, 1만45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밤의 동물원

문학동네/진 필립스 지음



영화 '다이하드'에서 '테이큰'까지, '악'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하는 '영웅'은 항상 '아빠'로 그려진다. '엄마'라는 존재를 스크린이든 소설이든 '현대 영웅 서사'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육아와 양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면서 아이와 더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가 혹은 가족이 위기에 빠진 현장에서 왜 항상 소외되어온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어본 적이 있다면, 이 '밤의 동물원'이 하나의 전복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320쪽, 1만5000원 /신정원 기자



김상회의四季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 중에서 제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제사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으로 시대가 변하기는 많이 변했다. 제사 전통은 분명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만 현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우선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그렇다. 과거 먹는 것이 귀하던 시절 제사 때만큼이라도 걱정 없이 여러 종류의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들께 흥향 올린 뒤 자손들이 모여 앉아 제사음식을 즐기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해지고 입맛 또한 달라졌다. 오히려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상을 물린 후에도 그리 환영받지 못한 찬 밥 신세인 것이다. 그러니 가족들의 상의 하에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조정을 해도 무방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신도 중 한 가정은 기제사를 지낼 때 꽃과 과일과 향 그리고 차를 올린다 한다. 물론 촛불도 켜고. 그리고 모인 가족들 친지들은 함께 절을 올리고 다과를 나눈다 한다. 그러다보니 제사상 문제로 형제들 동서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어떤 신도는 기일에 맞춰 부모님 묘소를 찾아뵙는데 묘소 참배가 끝나고 나면 근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고 한다. 기일이 평일이면 앞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참배를 한다고 한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사실 제사 자체를 잘 지내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순종했었다면 돌아가신 뒤 제사는 굳이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조금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성서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 구약성서 사무엘 상(上)에 나오는 구절로 기억된다. 하나님에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는 구절로 기억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의 귀한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한다.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자식이 아닌가? 많은 번민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다. 이삭의 목에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멈춰라!" 하시며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느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한다. 참으로 의미 있는 함축 아닌가?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잘 하려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한다. 살아 계실 때도 제 멋대로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잘 모시네 못 모시네 하는 것 참 우스운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당연한 얘기



김민소작가
당당평평

사람이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 는 이유라고 한다.

살면서 몸소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 반면 상대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적잖이 어려워 한다. 사실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얘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경청하도록 우리는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때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모든 일에는 불변의 고유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시시각각 변해야 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가 얘기한 만큼 내 자신도 그만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아는 사이는 그냥 익숙한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친

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필자는 말 많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역시 필자의 경우 항상 이곳저곳 많은 연락을 받는다. 그나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들어줄 수 있지만 바쁜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연락하는 것은 적잖은 고통이고 스트레스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모든 관계에서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관계도 관심도 아니다. 상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시간을 빼앗고 정서적으로까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슨 인관관계인가.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공해만 될 뿐이다. 인간은 역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성을 지니고 함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법이다. 남이 유쾌한 일은 나도 유쾌한 일인 경우가 많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답답한 경우는 대동소이하다. 인간사 '희노애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은가.

상대가 자신의 주장은 '리스닝'을 하기 원하며, 내 자신은 상대의 얘기에 '히어

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극히 사실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쟁과 분쟁 및 갈등과 다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그것은 또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 하고 사회적·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본능에만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직립보행과 불을 사용 등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얼마나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며 적절한 처신과 연행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편리해질 수 있지만 그 몸을 지배하는 생각과 사고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때로는 응용되고 발전된 모든 것을 떠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한다.

몸이 편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퇴보한다. 육체적 삶이 윤택해질수록 우리의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곤 한다. 육체적 편리함과 정신적 성숙함 중 구태여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각자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풀리 정치연구소장



KB국민은행,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원목길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KBS미디어, 푸른나무 청예단, 열린의사회 등과 함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와 KB국민은행,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사회공헌 '1004 활동' 전개
NH농협은행은 마케팅부문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영어 일시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케팅부문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농업인을 찾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해 1구좌에 1004원씩 희망하는 만큼 매일 기금을 적립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NH 마케팅부문 사회공헌 1004 봉사단'을 만들었다. /NH농협은행



신세계푸드, 아동복지시설 찾아 봉사활동
신세계푸드는 임직원들이 지난 2일 광주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애육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조리사, 위생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푸드 임직원 20여명은 애육원 원생 50여 명에게 크림파스타, 오므라이스 등을 직접 조리해 나누는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푸드



오뚜기 '23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개최
오뚜기가 지난 2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스위트홈 제23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150팀의 가족들이 자유 경연과 지정 경연, 두 부문으로 나누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또 참가 가족들은 열린 요리 경쟁과 더불어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열렸다. /오뚜기



대상 청정원, 요리 '노하우유크 시즌5' 성료
대상 청정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청정원 요리공방에서 진행된 '노하우유크' 시즌5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청정원 노하우유크는 요리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행사다. 지난 시즌4에서는 맥주 푸드페어링 노하우와 쿠킹클래스로 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상 청정원

여성이 비주류?



기지수첩
신원선 (온라인부 엔터팀)

아직도 성별이 주류와 비주류를 결정 짓는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이들이 있을까. 주류와 비주류를 경계는 누가 결정짓는 걸까. 개인과 그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일 뿐 그 누구도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남주 작가는 한명이지만, 그의 책을 읽은 독자는 여럿이었고 개개인들이 받은 울림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페미니

즘 운동, 미투 운동을 작가 혼자 이뤄냈다고 할 수 없지만, 아찔한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해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입에 올리는 순간 "여대 다니던 시절 운동권이었는데"라는 말과 따가운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화와 영화가 급부상했다.

지난해 개봉한 '미생: 사라진 여자'(감독 이연희)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보모를 추적하는 5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냉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 내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다. 영화의 스토리도 영화를 연출한 감독, 두

주연 배우 엄지원, 공효진 모두 여성인, 그야말로 여성영화였다. 올초 개봉해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한 '리틀 포레스트'(감독 임순례, 김태리 주연) 역시 여성이 이끌어가는 영화다. 여성이 남성위주의 작품에서 소비되고 그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는 주체적인 시각을 지닌 관객들이 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떠한 문화 콘텐츠를 접하더라도 이제는 젠더 의식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조남주 작가의 신간 '그녀 이름은'이 출간됐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욱 당당하고 과감하게 펼쳐진다. 이번 책의 파급력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된다. /tree6834@metroseoul.co.kr

금융감독, 몽골 금융당국 직원 실무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몽골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증권 및 보험 감독·검사부서 소속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수견연수(OJT)를 실시한다

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흥국의 금융감독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금융당국 직원에 대해 OJT를 진행

해왔다. 이번 연수는 오는 7월 20일까지 7주간 증권·보험 감독 및 검사 실무연수를 진행하고, 종합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10여개 유관기관 방문견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인사

- ◆환경부 ◇ 국장급 승진 △ 화학물질안전원장 류연기 ◇ 과장급 전보 △ 자연보전정책관실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영석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장 조은희
- ◆세종연구소 △ 부소장 이면우 △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 △ 연구기획본부장 정재홍 △ 교육연수본부장 박지광 △ 교육연수본부장 장민준 △ 외교통일연구실장 홍현익 △ 안보전략연구실장 우정엽 △ 통일전략연구실장 이성현
- ◆메트로신문 △ 정책사회부 오진희 △ 산업부 안

병도 △ 산업부 박찬길 ◇ 전보 △ 산업부 김유진 △ 유통&라이프 신원선 △ 유통&라이프 김민서

부음

- ▲김옥경 씨 별세, 황재우(사업) 씨 모친상, 안건희(이노선월드와이드 사장) 씨 장모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5일, 02-3010-2000.
- ▲이재기 씨 별세, 이연수(전 벨라루스 주재 대사) 씨 부친상 = 2일 오전 8시 15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대전현충원. 010

-4822-022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02)721-9861
광고인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69호
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63호

대학 자율성 강화는 어디로?... 가이드라인의 배신

〈선발 비율·방식〉

2개월 남은 2020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등 첫단추부터 논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면
대학들 학생부 중심 축소 우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가 국민 400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정해진다. 특히 대학마다 고유 영역이던 선발 비율과 선발 방식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대학 입시에 관한 대학 자율성이 훼손될 것 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1일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수능 절대평가 여부) 3가지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세 사안 모두 수능의 영향력을 낮춰 점수 경쟁을 완화시키자는 현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담겼다. 하지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른 학생 선발 비율과 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 대입 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도 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지난해 8월 여론에 밀려 결정을 1년 유보한 뒤 다시 재차리로 돌아왔다. 현재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한 수능 원점수제가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은 학생부 성적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한다는 기조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변별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이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의

대입 영향력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학종과 정시 전형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해 교육계 진보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기존 정부 측 입장에 비해 공론화 범위를 넓혔고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포함돼 이전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이 지속되면 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대입 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핑퐁게임’을 하듯 책임전가가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시 교

육부에 미루거나 범위에서 누락시켰다”며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비율도 일률적으로 정해 대학에 권고할 경우 대학의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가 확정된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연대는 “모집 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지역별 계층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국민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국민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시·정시 비율을 정해 대학에 강제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하는 형태로 반송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등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 폐기 또는 추가 논의 여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우리는 미래 과학자” 대전시교육청이 1~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 ‘제1회 노벨 과학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 ‘노벨과 함께하는 꿈나무들의 과학축제!’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에서는 노벨 탐구부스, 과학자 체험부스, 천문학자 체험부스, 노벨 과학상 수상 체험부스와 3D 프린터 렌 부스, 창의발명부스 등이 운영됐다. 과학 업적이 있으나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된 과학자를 선정, 시상해도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제1회 노벨 과학 말하기경연대회도 열렸다. /연합뉴스

중앙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
7년간 총 113억원 연구비 지원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2018학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SRC)에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년간 총 11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중앙대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책임자 이강석 교수)는 미생물의 생존 매커니즘을 시스템 관점에서 규명해 미생물의 제어·활용 원천기술 개발을 연구 목표로 하며, 중앙대 생명과학부 교수 7명, 융



중앙대 전경. /중앙대학교

합공학부 교수 1명, 외부기관 교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

해 중앙대 미생물생존시스템 연구센터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센터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이화여대 ‘21세기형 혁신과 리더십’ NASA 신재원 박사 특강

이화여자대학교는 엘텔공과대학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학부장 신태훈)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4일 오전 11시 교내 신공학관 159호에서 ‘21세기형 혁신과 리더십’을 주제로 미국 NASA(미국항공우주국) 신재원 박사(사진)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재원 박사는 1989년 버지니아텍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NASA에 입사했다.

지난 2008년 동양인 최초로 NASA 최고위직인 항공연구부부 총책임자를 맡아 항공 부문의 성장과 민간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학자이자 최고관리자다. /한용수 기자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재활용 폐기물’ 심포지엄

환경부 지정기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회장 최계운)는 환경의 날 기념 ‘순환사회 시대의 재활용(국민, 교육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4일 광화문 프레젠테이션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환경부와 환경관련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실태, 국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대 최계운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선진화된 순환사회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어려서부터의 교육,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아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학교

인천재능대 일학습병행제 최우수 평가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가 지난달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17 일학습병행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유니테크 부문 최우수상(S등급)과 재직자단계 부문 우수상(A등급)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일학습병행제 운영 4년차에 접어든 인천재능대는 재직자단계, 재학생(유니테크), 전문대 재학생단계 등 총 3개 분야의 일학습병행제 훈련유형을 진행하는 전국 유일한 기관이다. /한용수 기자

남산도서관 수화로 그림책 읽는 ‘손누리 독서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남산도서관(관장 손영순)이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일 2·4째주 토요일 10시에 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손누리 독서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손누리 독서회는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화로 독서활동을 함으로써 청각장애 학생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비장애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독서회는 남산도서관의 청각장애 사서인 이석민 자료정리팀장이 직접 지도한다. 학생들은 기초 수화를 먼저 배우고, 수화로 그림책을 읽은 후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된다.

독서회는 총 12회로 운영되며, 6개 주제의 수화 배우기와 6편의 그림책 읽기로 구성된다. 예컨대 1,2회차에는 ‘만나서



청소년 수화교실 활동 모습. /서울시교육청

만가워요, 자주 연락 나눌시다’라는 수화를 배우고,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 ‘나는 기다립니다’를 읽는다.

남산도서관은 독서회 개설에 앞서 지난달 26일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화교실을 운영했다.

손누리 독서회 회원가입은 남산도서관 정보자료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6911-0126)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grovana.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GMT
1547.1528



역대급 블록버스터 시리즈 투 톱의 귀환

쥬라기 월드 VS 미션 임파서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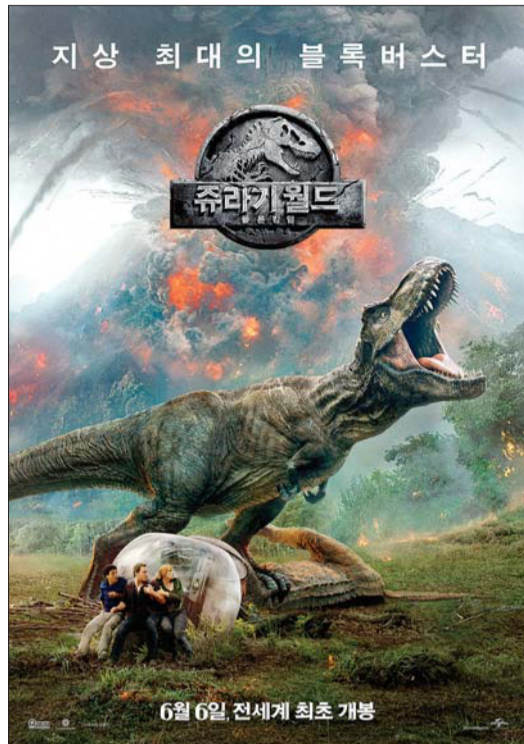
본격적인 여름 극장가의 포문이 열렸다. 그 중 올 여름을 책임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속편 6월 6일 개봉작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과 7월말을 시원하게 질주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출격 준비에 나섰다.

6월 6일 현충일 개봉을 앞둔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폐쇄된 '쥬라기 월드'에 남겨진 공룡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존재해선 안 될 진화 그 이상의 위험적 공룡들까지 세상 밖으로 출몰하는 대위기를 그린 지상 최대의 블록버스터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3부작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전편 '쥬라기 월드' (2015)는 5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올해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에 이어 흥행 연타를 예고하는 크리스 프랫을 비롯, 전편에 이어 컴백한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와 '토르: 라그나로크'의 제프 골드브럼 등 쟁쟁한 캐스팅이 완성됐다. 더불어 더욱 진화된 공룡들이 등장, 3D 프린터를 활용한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놀라도록 생생한 비주얼을 기대케 한다.

특히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4DX와 최적의 조합을 통해 환상적인 공룡의 세계를 보여줄 것을 예고했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4DX는 공룡의 육중한 발걸음에 맞춘 진동 효과와 영화 속 다양한 환경에 맞춘 향기와 열풍 효과, 공룡들의 움직임에 맞춘 디테일한 캐릭터 모션 등 완성도 높은 4DX 효과로 테마파크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입증하듯 개봉일인 현충일 4DX 예매 폭주가 이어지며 관객 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편을 뛰어넘는 역대급 4DX '공룡'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7월 개봉하는 최고의 기대작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최고 스파이 요원 에단 헛트(톰 크루즈)와 IMF팀이 행한 모든 선의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미션을 끝내야만



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반박불가 전 세계 최고의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6번째 작품으로 개봉 확정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리즈의 4편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볼'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진화 그 이상의 공룡 출몰 대위기 그려내 4DX와 최적의 조합... 한층 몰입도 높여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톰 크루즈, 헬기 조종 등 리얼 액션 담아 스파이 기관 IMF 팀원들 돌아와 팬 환호

(2011)은 757만 이상, 전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2015)은 612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시리즈 국내 누적 2000만 명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번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전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의 연출을 맡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다시 한 번 메가폰을 잡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기대케 한다.

지구상 최고의 액션 배우 톰 크루즈는 어김없이 전 세계 최고의 스파이 '에단 헛트' 역을 맡아 직접 헬기를 조종한 것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목 부상 투혼까지 리얼 액션을 펼쳤으며, '슈퍼맨' 헨리 카빌이 에단 헛트의 라이벌로 출연해 박빙의 액션 대결을 기대케 한다. 또한 전편에서 데뷔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스파이 '일사' 역의 레베카 퍼거슨이 동료로 컴백하며, 스파이 기관 IMF의 팀원들도 돌아와 시리즈 팬들이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블랙 팬서'의 안젤라 바셋, 라이징 스타 바네사 커비 등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배우들의 대거 합류 역시 주목 포인트다.

업그레이드된 액션 시퀀스와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치밀한 캐릭터 케미스트리와 팀워크까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대한민국 관객들이 여름을 기다리는 단연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UPI·롯데엔터테인먼트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물망초

힘을 내 힘을 내어 소리치자 친구여 그대여, 함께라면 고통도 희망이 되리니

/고홍근 작

'독전' 거침없는 흥행독주... 韓 300만 최단 기록

개봉 12일차에 누적 300만 돌파 박스오피스 12일 연속 1위 기록

아시아를 지배하는 유령 마약 조직의 실체를 두고 펼쳐지는 독한 자들의 전쟁을 그린 범죄극 '독전'이 개봉 12일 차에 손익분기점을 뛰어 넘는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2일 오후 5시 기준)에 따르면 '독전'은 개봉 12일째 누적 관객수 300만 1539명을 기록, 100만, 200만 돌파부터 300만 돌파까지 2018년 한국영화 최단 기록을 경신하며 올해 한국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이 쓰



적으로, 극장가의 적수 없는 흥행 강자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보다. 여기에 경쟁작인 마블 영화 '데드풀2'와 '스타워

즈'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인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의 공세에도 개봉 이후 12일 연속 부동의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또한, '독전'의 흥행속도는 687만 명을 동원하며 2017년 한국 청불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범죄도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범죄 장르 대표작 '신세계'의 속 도보다 무려 12일이 나 빠른 성적으로, 극장가의 적수 없는 흥행 강자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보다. 여기에 경쟁작인 마블 영화 '데드풀2'와 '스타워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4일
음력: 4월 21일

수도권 날씨
27 ~ 1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2 | 해질 / 19:49

연천 15/27, 동두천 16/27, 가평 14/27, 파주 15/26, 서울 18/27, 양평 16/27, 인천 18/23, 수원 17/26, 용인 17/26, 평택 16/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2018 러시아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담금질을 위해 3일 오스트리아로 출발했다. 신태용 감독과 대표팀 23명은 전지훈련 캠프지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러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 ▲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좌완 P.J.콜론을 영입, 40인 로스터에 포함하기 위해 사타구니 부상으로 재활 중인 류현진을 10일짜리 DL에서 60일짜리 DL로 이동시켰다.

- ▲ 인도가 2026년 하계유스올림픽, 2030년 아시안게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의향을 제출할 계획이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 19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다.
- ▲ 태권도 남자 58kg급 올림픽랭킹 1위 김태훈이 2018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이틀째 남자 58kg급 준결승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이번 시즌 첫 패전투수가 됐다. 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외의 방문경기에 출전해 ⅓이닝 3실점을 기록했으며, 팀은 4-7로 패했다.

“서울-용산역 구간 지하화... 유라시아 철도 시작역 될 것”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주말 행보

첫 주말 유세 초점 ‘시민·평화’ 문익환 100주년 행사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6·13 지방선거 첫 일요일 유세의 초점을 ‘시민’과 ‘평화’에 맞췄다.

박 후보는 3일 오전 첫 일정으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경제인과의 공감토크에 나섰다. 캠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서는 ‘시민공감 대변인단 발족식’을 열고 대변인단을 홍길동의 변신술에 비유해 격려했다.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다오’ 행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을

서울시가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잡포대 아닌 잡포대’라는 시에서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막 조르는 장면이 나온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경의선 복원 합의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잘 완성되면, 문 목사의 잡포대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서울역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아니면 중국 횡단 철도의 시작점이고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여기서부터 용산역까지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여러가지 철도편의시설, 관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운전해 주시면, 평양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오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경제인과의 공감토크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원순 캠프

생겨날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유라시아 철도로 베를린까지 수학여행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내걸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 개량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

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공약으로는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와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의 확대·활성화’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열린 파트너십을 위해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시 예산의 5%를 시민이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가 거시적인 사회적 협약을 맺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속의·공론장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와 지식연구협력의 ‘개방형 사회의제 플랫폼’을 구축·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쓰레기 매립장서 생태공원 되기까지

“월드컵 공원 변천사 무료 투어하세요”

8일부터 ‘이야기 해설’ 운영 역사·생태·재생 3개 프로 구성

서울시가 이달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월드컵공원 이야기 해설’을 운영한다.

해설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현재 생태공원이 되기까지 월드컵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를 담은 해설 프로그램이다. 시는 역사·생태·재생 등 3가지 관점으로 월드컵공원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역사적 관점의 ‘마음여행 -난지도 일기’는 아름다운 꽃섬 시절부터 쓰레기 매립지, 매립장 안정화공사를 거쳐 현재 월드컵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의 변천사를 알려준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매립가스 발생현황, 침출수 처리현황, 쓰레기 더미 위에 흙 등으로 복토하는 과정과 공원으로 개원한 후 현재까지 매립지의 안정

화모습을 모니터링한 결과 값까지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고자 월드컵공원을 방문한 해외공무원은 지난해 1175명으로, 이들 모두 이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프로그램을 대학교와 국내외 공공기관 견학코스도 추천한다. 사전 신청은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태적 관점의 ‘비밀여행 -누가 살고 있을까’는 난지도의 옛날이야기와 더불어 ‘귀화식물’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초·중학생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이다.

귀화식물은 매립가스와 침출수, 건조한 토양환경 등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이루는 역할을 했다. 견학생은 현재 독특한 매립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다.

학교 단체 프로그램은 최대 30명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일반 가족단위는 최대 20명 격주 토요일 10시에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재생적 관점의 ‘기억여행 -응답하라 1978’은 공원형 도시재생 사례인 월드컵공원과 문화비축기지를 연결해 돌아보는 다크투어 코스다.

월드컵공원은 과거 약 100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고, 문화비축기지는 비상시를 대비한 1급보안 석유저장 시설이었다. 과거 아무도 찾지 않던 이 두 곳의 어두운 과거를 알아보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9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된다. 일반인 누구나 20명(회당)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의 산과공원 누리집(<http://parks.seoul.go.kr>)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누리집(<http://ye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범중 기자

21~24일 음악축제 ‘창동 걸쳐 스테이션’

플랫폼창동61 개장 2주년 기념

서울시가 음악축제 ‘창동 걸쳐 스테이션’을 21일~24일 플랫폼창동61과 창동시립운동장에서 개최한다.

플랫폼창동61 개장 2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DMZ 피스트레인(Peace Train) 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해 같은 기간 개최된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21일 열리는 콘퍼런스 ‘음악은 피스트레인을 타고’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4회)과 라운드테이블(3회)로 진행된다. 축제 공동 조직위원장이자 세계적인 축제 기획자 마틴 엘본을 비롯해 아티스트, 사회학자, 평화운동가, 음악산업 관계자 등 총 13명의 연사가 나선다.

22일에는 ‘DMZ 피스트레인X플랫폼창동61 쇼케이스’가 플랫폼창동61 내 레드박스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플랫폼창동61을 대표하는 입주·협력 뮤지션 3팀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뮤지션 2팀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23일에는 창동시립운동장에서 피크닉을 콘셉트로 한 야외무대 공연이 오후 5시부터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뮤지션 ‘10CM’, ‘잔나비’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얼터너티브록 밴드 ‘겨자대령과 디종’이 무대에 오른다.



같은 날 플랫폼창동61에서는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도시재생과 관련해 북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북콘서트에는 ‘도시의 발견’의 저자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은 깊다’의 저자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플랫폼창동61 입주·협력 뮤지션인 ‘브로큰렌타인’, ‘에이프릴세컨드’, ‘트리스’ 3팀의 기획공연이 열린다. /이범중 기자

매월 둘째주 화요일 ‘섬 음악회’ 연다

서울시, 흥건익 가옥서 30분간

서울시가 역사가옥인 ‘흥건익가옥’에서 ‘정오의 휴식: 섬 음악회’를 올해 12월 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연다.

음악 장르와 곡목은 그 달의 성격과 계절에 따라 결정된다. 공연은 30분간 열린다. 공연은 가옥의 뒤뜰, 안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주민과 주변 직장인을 비롯해 방문객 등 누구나 사전 예약 절차 없이 관람할 수 있다.

5월 시작되는 ‘6월 음악회’는 ‘양상블 I F팀’이 출연해 지난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서 오연준 군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공연한다. 또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처럼 봄과 여름 사이의 계절감을 담은 공연을 선보인다.

8월 음악회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열린다. 10월에는 가을 감성이 담긴 클래식 공연이 진행된다.

흥건익가옥은 1930년대 근대한옥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전통방식을 수용한 면모가 혼합된 건물이다. 가옥은 언덕의 단



차를 이용하여 5개 동의 공간 분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일각문과 전통 우물까지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서울 시내 유일하한 대한옥이다. 가옥은 건축 세부가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3년 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17년부터 역사가옥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지난 4월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민간위탁을 맡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흥건익가옥 ‘정오의 휴식’ 음악회를 시작으로 흥건익가옥이 주민과 일반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성과 가옥의 정체성에 부합한 공공한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88 올림픽 30주년 기념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서울시, 10월3일 개최

서울시가 10월 3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은 88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로,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손기정기념재단이 함께 준비한다.

대회는 손기정 선수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동호인 마라톤이다. 2005년부터 시작돼 매년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회다.

시는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해 각종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대회 참가인원도 2만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올림픽 30주년 부대행사로 는 서울올림픽 특별전시회, 공식 캐릭터 호돌이 특별전, 손기정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범중 기자

‘車 친환경 라벨’ 디자인 시민의견 반영

서울시, 내달부터 상위등급에 부착

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발표·고시했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재 제작되거나 운행중인 모든 차량은 각 등급에 속하게 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

시는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라벨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시는 누리집을 포함한 전자설문 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이달 중 2차 시민선호도를 진행한다.

시는 빠른편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범중 기자



[산업]
KT
블록체인·AI기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
04



Life

[라이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첫 주말 유세 초점
'시민'·'평화'에 맞춰
L7



택배는 우리 삶의 일부, '땀의 대가'는 정직 합니다

“땀동~ 기다리는 고객위해 새벽부터 정신없죠”



택배기사 허익준 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대세인 요즘,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소확행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택배’라고 말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온라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신중하게 고른 물건을 기다리는 설렘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택배 서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택배가 우리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전국에서 활동 중인 택배기사다. 기자가 만난 허익준(47) 씨도 대전에서 7년째 택배기사로 활동하면서 고객들이 주문한 물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처음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마흔을 앞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나이에 해당 분야 경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았죠.”

허 씨가 택배기사 일을 고민하게 된 시기는 6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부터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이미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던 작은 형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택배기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때 마침 작은 형이 택배기사 일을 해 인선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성실히 하기만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처음에는 아내와 가족들이 반대했습니까. 당시 만해도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고, 가장 고된 직업 중의 하나로 인식돼 있었기 때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허익준씨가 자신의 배달 차량에 실을 택배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배달을 대기 중인 차량들.
▶ 허익준씨가 자신의 배달 차량에 배달할 택배 물건을 싣고 있다. /최신용기자



경영난으로 식당 문 닫고 택배 시작하는 만큼 이익 얻는 성실한 직업

고된 업무·정신적인 피로 힘들어 배달 물량 많을 때는 식사 거르기도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 좋아진만큼 특수노동자 불이익 점차 해소되길

문이지요.”

실제로 허 씨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더 고된 업무 강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물품 분실과 고객 항의에 대한 대처 등 의외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씨는 2년 정도 버티고 일을 하니 이후 부터는 자신감이 생겨 이제는 정신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지 않게 됐다고 말한다.

허 씨의 하루는 평균 새벽 5시에 시작된다. 5시에 일어나 6시까지 영업소에 도착해 오전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 배달될 물품을 분류하고 오후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물건을 일일히 배달하는 일이 계속된다. 월요일

이 가장 한가해 오후 2시 정도면 일을 마치고, 가장 분주한 화요일은 밤 11시 정도에 일이 끝나기도 한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허 씨가 하루에 배달하는 택배 물량은 평균 500여 개 정도. 한 달에 허 씨가 손에 쥐는 액수는 400~500만원 정도 된다.

또한 허 씨가 말하는 택배기사란 직업의 장점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름 휴가철 1~2달 정도가 비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도 평상시보다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빠질 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추석 연휴를 비롯한 가을철에 각종 행사와 기념일 등으로 늘어난 물량이 비수기의 적자를 보충해준다.

“택배기사 일이야 말로 자기가 하는 만큼 이익을 얻는 가장 성실한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받는 이들은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이 정도 수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화요일처럼 배달해야 할 일이 많은 때는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잠이 부족할 때도 많죠. 그래서 보통 잠을 쫓으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그러는데, 보통 택배기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카페인, 니코틴, MSG, 알콜’이 택배기사들의 4대 영양소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7년 동안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니뭐니해도 고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허씨는 강조

한다.

“7년 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상처받았던 것 중 하나는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그래서 싸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반대로 고생한다면서 물 한잔 건네거나 빵 같은 먹을 거를 주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 분들을 만난 날은 아무 리 일이 힘들어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택배기사를 무시하는 인식도 많이 사라져 한결 일하기 수월해졌다는 허 씨,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택배기사가 특수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받게 되는 불이익들도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택배기사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보니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고용한 대기업에서 업무를 우리들에게 넘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적인 업무 처리에도 시간이 모자라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정부에서는 현재 택배기사들에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주유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혜택 하나만으론 많은 도움은 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좋아졌던 것 만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택배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글·사진=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